

영화공동체를 상상하다

영화감상동호회 운영 가이드&사례집

|기획|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행|

곽서연, 이은아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편집책임|

김명아, 김진숙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글쓰기|

김명아, 김진숙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남훈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김지영, 유다원 (이야기하는 마을극장)
김호빈 (영화의문)
이명신 (다큐멘터리 등호회 나무)
김소정, 김슬기, 유민아 (세손가락)

|발행일| 2015. 4.

|발행처|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

|발행인|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디자인| 박찬선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인쇄| 신우디앤피

목차

펴내며

영화공동체를 상상하다

공동체와 영화, 시민 영화공동체

공동의 목표와 노력을 담아, 함께 만드는 영화공동체

영화감상동호회 운영 가이드

영화감상동호회 사례

사례1_모기동, 이야기하는 마을극장

사례2_책과 사람, 영화가 공존하는 곳,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사례3_주민이 주인공인 은평영화제

사례4_숨리아이쿵 작은영화제

사례5_협동조합 '모극장'과 시민영화

사례6_영화는 즐거운 놀이, 영화의문

사례7_다큐가 좋다, 다큐멘터리 동호회 나무

사례8_강릉에서도 가능하다, 세손가락

부록

펴내며

극장에서만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시기를 넘어 IP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서 편리하게 클릭 몇 번으로 영화를 다운로드해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비좁은 공간에서 작은 의자에 불편하게 앉아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영화를 통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영상미디어센터는 영화를 매개로 활동하는 이러한 영화 감상동호회를 지원하고자 '2014년 영상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혹은 이 사업을 통해 새로 조직된 총 9개 지역, 10개 동호회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영화읽기 모임을 만들기도 했으며 또한 시민프로그램머 양성 교육 등과 같은 교육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영화공동체를 상상하다-영화감상동호회 운영 가이드&사례집'은 이러한 영화감상동호회를 활성화하고, 특히 새로 영화감상동호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영화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책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전반부에는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의 의미와 더불어 이러한 동호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동호회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역할과 이들이 직접 상영회를 진행할 때 필요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상영회 진행에까지의 여러 가지 팁을 담았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호회들의 영화를 매개로 한 재미난 활동 사례들을 그들의 목소리로 전한다. 서울 모기동 마을카페 숙영원의 '이야기하는 마을극장', 영화감상에서부터 독서모임, 음악회까지 열리는 서울 응암동의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은평 주민들이 만드는 '은평영화제', 송리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작은영화제', 비극장 상영 방식을 중심으로 대안적인 배급망을 만들어 영화 향유의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시민프로그램 양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영화의문', 원주에서 다큐멘터리 정기상영회와 페스티벌을 꾸려가고 있는 다큐멘터리 동호회 '나무', 강릉에서 청소년, 청년 관련 영상 상영 및 제작 활동을 하고 있는 '세손가락'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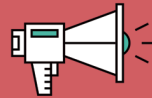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다양한 작당이 각자의 삶터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오고 가는 소통의 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것이 일상에서 다양한 씨앗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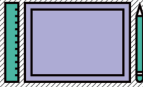
이 책자를 통해 동호회를 만들고 재미난 작당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유용한 가이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호회를 만들고자 첫 걸음을 댄 분들에게는 마중물이 되기를, 이미 두세 걸음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의 열쇠말이 되기를 바란다.

공동체와 영화, 시민 영화공동체

공동의 목표와 노력을 담아, 함께 만드는 영화공동체

영화공동체를 상상하다





공동체와 영화, 시민 영화공동체¹⁾

공동체의 시작은 개인의 결핍으로부터 출발한다. 개인이 가진 결핍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초기 인격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결핍상태를 타인에게 알리고 보편성을 인지하는 과정이 바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시민 영화공동체는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다. ‘시민’이라는 주체로 따로 불리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속에서 여러 영화공동체를 기억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존재했던 영화 창작동아리와 관람동아리, 지금은 아련한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과 같은 PC통신동호회,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형태로는 ‘문화학교 서울’과 ‘장산꽃매’를 기억한다. 이 주체는 네티즌이었고, 학생이었고, 민중이었지만, 아래의 요구로부터 상향화되었다는 점에서 모두 시민이라 말할 수 있다.

국내 영화 산업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이끄는 시스템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 강해질수록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풀뿌리’ 영화공동체는 약화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치적 환경의 잦은 변화로 인해 영화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정부지원을 위해 영화계의 여러 진영이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독과점으로 인한 영화 산업 불균형 등의 문제는 다시금 풀뿌리 영화공동체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해마다 대기업의 제작, 투자, 배급을 중심으로 한 몇 편의 흥행大作들과, 반대로 자본의 불균형으로 인해 조용히 사라져가는 수많은 영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대영화자본의 독과점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영화공동체는 영화와 인접되어 있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공동화 속에서 형성된다. 2014년 초, 전북 구례에 조성된 아이쿱생협의 물류 클러스터 단지에는 70여 석 규모의 작은영화관 두 개관이 들어섰다. 정부나 지자체의 작은영화관²⁾ 지원사업과 별개로 스크린이 하나도 없는 이 지역을 위해 지역 생협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영화관이었다. 이는 영화산업 밖의 시민조직이 영화향유권을 위해 직접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였다. 영화 관련한 협동조합도 여럿 설립되었고, 소규모 영화공동체와 시민영화제도 여기저기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시민의 필요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자기 자본(사회적 자본)을 통해 발생되어진다는 점이다.

공동체의 회복은 다양한 영화담론을 창출하게 한다. 영화를 보는 공통의 견해를 모으는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의 과정은 신선하고 새로운 담론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진영을 확장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태계의 발전으로부터 연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시민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발전은 시스템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닌, 상호적인 관계망을 통해 유의미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 영화공동체는 영화라는 공통의 이슈, 이해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영화감상, 영화 읽기, 또는 상영회 등의 취미와 활동을 공유하는 '영화감상동호회'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공동체는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활동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성원 간의 보다 강한 결속력과 책임의식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동호회를 포괄하는 말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영화감상동호회'들이 공동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호회로 명명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영화감상'이나 '상영'에 집중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동호회로 지칭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2) 작은영화관은 극장 부재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총 100석 내외, 2개관으로 구성되는 작은 규모의 상설 상영관을 일컫는다. 인구 2만 명에서 10만 명 이하의 지역에 조성하는 작은 규모의 영화관이자, 수익성으로 영화관 설치를 판단하지 않고 지역민의 문화 생활 증진을 위한 공공적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 문화 시설이다. (정영욱, 윤혜숙, 함주리, 『작은영화관 조성과 운영 매뉴얼』, 영화진흥위원회, 2014,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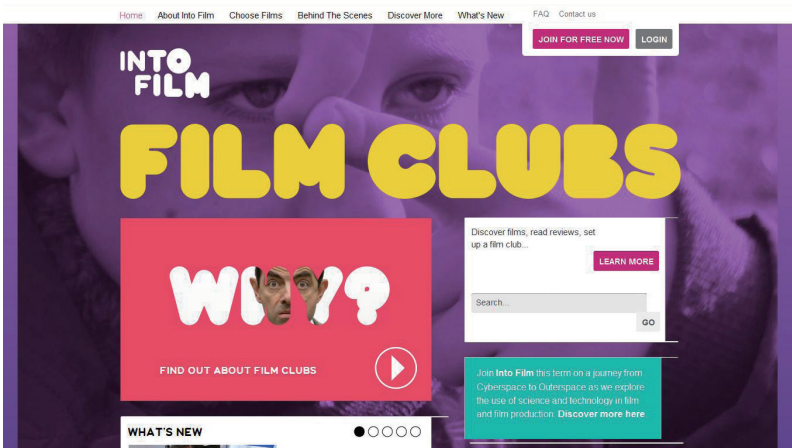
공동의 목표와 노력을 담아, 함께 만드는 영화공동체

영화를 '함께' 보는 것, 그 경험의 중요성은 영화가 우리의 컴퓨터에, 태블릿에,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은 특정 장소에 대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는 시간적 경험일 수도 있다.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소비로서의 영화보기가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욕구와 취향을 공유하고 확장시키는 것, 이런 시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영화를 함께 본다는 것,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으로, 작당으로, 교육적 목적 등으로 확장시킨다는 것. 그것은 어떤 모습이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국내의 크고 작은 '영화감상동호회'의 사례들을 소개하기 전에 여기에서 잠깐, 해외의 몇 가지 사례들로 눈을 돌려보고자 한다. 우리에게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으나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이곳에 간단히 소개해본다.

영국의 '필름클럽(Film Club)'은 영국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영화를 보고, 토론하고, 리뷰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 교육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2007년 25개의 학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7,000개가 넘는 필름클럽, 20만 명 이상(자체 286,676명으로 집계)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매주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 외에도 학교 밖 유스클럽이나 극장, 도서관 등에서 만들어진 필름클럽도 포함된다.

필름클럽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필름클럽 활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 논쟁하는 능력을 키워”주며,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형성해 주고,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키워준다”고 말한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접해보지 않았던 영화를 필름클럽을 통해 접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경험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¹⁾.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이고 감성적인 이슈들을 이해하는 매개체로서의 영화와 토론, 글쓰기의 경험은 분명 유의미하다.



이런 거대한(!) 필름클럽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영국영화협회인 BFI(British Film Institute)의 적극적인 지원 덕택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적 장기적인 비전 아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천 600만 파운드(한화 약 446억)라는, 영화 교육에 있어서는 영국 내 최고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²⁾.

어릴 적부터 영화를 매개로 토론하고, 영화를 분석하고, 리뷰를 써 보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는 학생들 개개인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거창하게 말해 본다면 그 국가의, 더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국내 영화 산업의 측면에서도 영화의 다양성 문제나 시장 규모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 보면서 말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일본에서도 대도시와 지역 간의 상영환경 격차 확대, 멀티플렉스로 인한 단관 극장들의 폐관, 멀티플렉스의 상영작품 편중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도시와 지역 간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커뮤니티 시네마 (Community Cinema)’이다. 2003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상영활동에 대한 지원, 필름 라이브러리 구축, 영화 상영이나 교육 등과 관련된 연구 활동, 상영활동 및 영상교육 전문가 육성, 회원 간 친목, 정보교환, 상호연대의 추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좁게는 기존의 영화관을 빌리는 형태로 일시적인 공공상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넓게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학교, 공공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장소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미디어센터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운영주체도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관이 주도하는 곳도 있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커뮤니티 시네마 홈페이지 사진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Community Cinema website. At the top is a navigation menu with links for Home, News, About Community Cinema, Project, Event Information, Film Rental, Publication, Organization Overview, and In-house Informa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On the left, there is a '注目プロジェクト' (Featured Project) section with three sub-items: 'シネマ・シジケート' (Cinema Sijikete), 'シネマテーク・プロジェクト' (Cinema Take Project), and '子供と映画プログラム' (Children and Film Program). The central part of the page features a large banner for 'MoMA ニューヨーク近代美術館 映画コレクション' (MoMA New York Contemporary Art Museum Film Collection), with dates '2014年10月24日金~11月9日日' and the location '東京国立近代美術館フィルムセンター'. To the right of the banner is a '上映者の方必見! フィルムの貸出 最新情報' (Must-read for exhibitors! Latest information on film rental) section. Below the banner is a 'コミュニティシネマニュース' (Community Cinema News) section with an RSS feed icon. At the bottom left, there is a '参加者募集!' (Recruitment) section and a '全国コミュニティシネマ会議' (National Community Cinema Conference) link. The footer contains a date '2015年1月 9日' and a copyright notice '【JCNNEWS】明け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시민 자발형’ 커뮤니티에서는 상영회 장소 확보에서부터 상영 프로그램 기획,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행하고 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이들을 뒷받침해 준다. 각 지역에서는 주민과 관이 협력하여 기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빈 건물을 개조하여, 비즈니스와는 다른 측면에서 새롭게 주민의 문화거점 시설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점 형성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는 영화제작과 영화제 개최를 통해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³⁾.

국내에서도 각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꾸리는 작은 영화제들이 있다⁴⁾. 물론 운영 주체와 협력하는 단체나 관의 성격 등이 상이하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상영회나 영화제의 활성화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영화를 통한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지고 또 그 경험들이 쌓여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에서 이른바 ‘시네필 커뮤니티’, 즉 영화공동체는 이미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시네클럽’ 혹은 ‘필름 소사이어티’라고 불리는 공동체 내에서 영화를 함께 보는 것은 물론, 영화가 예술인가 아닌가라는 논쟁과 영화비평, 영화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질 만큼, 프랑스와 독일 중심의 영화공동체는 일찍부터 조직되었다.

1970년 독일 시네마테크동호회(Freunde der Deutschen Kinemathek)가 회원들을 위해 전용극장으로 개관한 독일 최초의 비상업적 상영관 베를린 아르제날 극장(Das Kino Arsenal)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생겨난 곳이다. 영화 감독, 젊은 비평가들 비롯해 영화 전문가라 할 수 있는 8명의 열혈 ‘영화청년’들로 시작한 시네마테크동호회는 이제는 전용 공공상영관에서의 영화 상영은 물론, 배급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베를린영화제의 한 섹션의 프로그래밍을 담당할 만큼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사실 지금의 운영 방식을 동호회 형태로 명명하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이미 70년대부터 베를린 예술원 강당원을 빌려 상영회를 개최하던 것에서 시작해서 전용극장을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런 장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Januar 2015 kino arsenal

Susan Sontag Revisited



Susan Sontag (1933–2004) war Essayistin und Schriftstellerin, Aktivistin und Theoretikerin, darüber hinaus Celebrity der Pop-Kultur. Sontag verband leichthändig Geist, Glamour und Dissidenz. Ihre Texte zu Fotografie und Kriegsberichterstattung, Krebs und AIDS sind nicht zuletzt auch Film und Kino sind legendär. Vielzitiert ihre Formulierung von 1964 – enthalten im Essay Gegen Interpretation –, dass der Film gegenwärtig die lebendigste,

erregendste und bedeutendste aller Kunstgattungen sei. Sie war fest überzeugt, dass Filme durch die von ihnen herbeigeführte Wahrnehmung der Realität eine außergewöhnliche Erziehungsfunktion haben könnten, nicht nur im Sinne einer ästhetischen Bildung, sondern auch im Sinne einer Ausweitung des Empfindungsvermögens, sozusagen einer Erziehung des Herzens.

Weitgehend unbekannt blieb Susan Sontags Wirken als Filmemacherin: Zwischen 1969 und 1993 hat

Asynchron Visionary Archive
Abonnieren Sie den Arsenal Newsletter

Januar 15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heute	24	25	26	27	28	29	
30	31	>>					

kino arsenal sononolux II

17:30 Kino 1

Abschlusspräsentation

아르제날_홈페이지 사진

시네마테크동호회의 성장 동력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베를린 영화제의 한 섹션인 ‘국제신진영화포럼(Das Internationale Forum des jungen Films)’을 맡게 된 것이었다(이들이 얼마나 영화적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통해 시네마테크동호회는 정부 지원을 통해 영화제에서 독자적으로 영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고 당시 낡은 극장도 구입해 ‘아르제날’이라고 이름 붙인다. 정부 지원을 통해 아트하우스이자 공공상영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아르제날 극장은 독립적, 정치적, 실험적 영화들과 신진 감독들의 영화를 소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며 정기상영을 진행했고, 감독을 초청해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영화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선구적 작품들을 발굴, 상영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영화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또한 아르제날은 영화 상영뿐 아니라 자체 배급체제를 갖추어 작품을 배급하고 자체적으로 작품을 소장하기도 해 아카이브로서의 기능 또한 하고 있다⁵⁾.

앞서 언급한 국내의 지역 영화제를 비롯해서 국내에서도 이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영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활발히 진행 중이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할 때, 공동의 관심사를 매개로 개개인이 서로 연대할 수 있고 공동체로서 교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사실은 분명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도

있다. 우리가 영화감상동호회, 커뮤니티, 공동체, 모임 등으로 말하고 있는 이러한 활동들이 순진무구한 유토피아적 전망 속에서 안주한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영화를 매개로 한 공동의 활동 그 자체는 항상 불완전한 상태일 수밖에 없고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존속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있는 궁극적 이유와 목적은 다만 함께 있다는 데에 있다. (...) 다만 함께 있기 위해 함께 있음, 즉 공동-내-존재를 위해 함께 있음, ‘무엇’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 자체를 나눔, 다시 말해 ‘나’와 타인의 실존 자체가 서로에게 부름과 응답이 된, ‘우리’의 실존들의 접촉.”이라고 말할 장 뤽 낭시의 말처럼, 각자의 불안전함을 보충하고 보완하며 함께 있음 그 자체를 나눌 수 있는, 따라서 상호 예측됨 없이 독립적이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그리고 공동의 의미를 창조해 갈 수 있는 ‘함께함’이 필요할 것이다⁶⁾.

1) 필름클럽 홈페이지 참조(<http://www.filmclub.org/about/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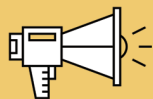
2) 필름클럽 홈페이지 참조(<http://www.filmclub.org/about/who-we-are>)

3)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에 대한 내용은 김미림, 「일본 영화산업과 지방의 활성화」, 영화진흥위원회 연구자료, 2009년 커뮤니티 시네마 홈페이지(<http://jc3.j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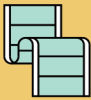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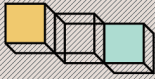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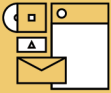
4)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에 ‘폼사리’ 낱다는 의미로, 부천 약대동 주민들이 만든 ‘폼사리영화제’,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시민프로그래머 양성 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이 만든 ‘수원사람들 영화제’, 모두를위한극장의 청년조합원인 ‘영화의문’이 시민프로그래머들과 함께 만든 ‘그들 각자의 영화제’ 등이 있다.

5) 독일 시네마테크동호회 및 아르제날 극장과 관련한 내용은 진화영, 「지역공공상영관(Kommunales Kino)의 원조-베를린 아르제날 극장(Das Kino Arsenal)」 소개, 영화진흥위원회 연구자료, 2006년 아르제날 홈페이지(<http://www.fdk-berlin.de/home.html>) 참조

6) 백기영, 「어디에나 존재하는 혹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커뮤니티를 위하여」, 『똑똑 Talk Talk 커뮤니티와 아트』, 경기문화재단, 2013, 8쪽 참조



영화감상동호회 운영가이드



영화감상동호회 운영가이드

영화동호회는 영화·영상물 창작을 위한 동호회와 관람을 위한 동호회로 나누어진다. 창작동호회의 경우, 공동 창작, 교육, 자원 공유, 상영과 배급·홍보를 위한 협동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이 중심이고, 관람동호회는 취향, 지역환경에 따른 향유권, 공동체 교육 등의 목적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서는 창작동호회보다는 관람을 중심으로 한 동호회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창작동호회의 경우, 창작물의 완성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동호회의 활동도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람동호회의 경우는 보다 쉽게 조직 및 유지될 수 있으며, 다양한 창작과의 연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1. 영화감상동호회 결성 및 운영

영화감상동호회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볼 영화를 우리가 선정하여 보겠다는 공동의 필요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공동의 필요는 지역의 여가·문화적 환경, 연령별, 구성원들의 영화관람편수 및 취향 등에 따라 다양하다. 각각의 이유가 절실한 필요조건이 될 때 동호회는 연속성의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결성된 동호회 모두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이러한 영화감상동호회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 할 수 있다.

1) 영화감상동호회 결성

영화감상동호회는 영화를 함께 본다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목적에서 더 나아가, 영화를 통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람행위를 다시 재생산하는 등의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동의 관심사, 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보다 분명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동호회는 참여자들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가 절실할 때 생겨 난다.

수원 지역의 예를 들어 보자. 수원의 총 스크린 수는 44개, 영화관은 6개다. 수원의 인구 대비, 스크린 한 개당 수용 인구는 19,318명인데, 서울이 스크린 한 개당 14,992명을 수용하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수원의 극장환경이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수원의 극장이 중심 상권지역인 팔달구에 몰려 있는 반면, 팔달구에 있는 극장 대다수는 수원의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신도시인 영통구민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수원의 나머지 지역민들은 오히려 서울에서 영화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극장 환경 외에도 한편으로는 여가와 문화를 위한 인프라가 서울보다 부족하다는 수원 시민들의 인식이나, 주로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위성도시로서의 수원의 위치도 이 지역의 영화관람 환경을 설명해 준다.

또한 무엇보다 수원은 서울에 비해 예술·독립 영화 등 보다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이 부족하다. 따라서 수원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를 보기 위해 서울로 가는 거래비용을 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을 따져 본다면, 수원에서 어떤 주체가 결성한 영화동호회가 더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수원의 소위 '영화 마니아'들은 예술영화를 보고 싶다는 문화적 필요와 서울까지 이동하는 거래비용을 낮춘다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더불어 시민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지역에 문화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동호회를 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화감상동호회의 운영

동호회는 활동 중심의 단체이므로, 참여 회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활동의 연속성을 위한 경제적 조건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호회를 움직이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체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공간(아지트)이다.

① 주체의 결성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화 관람에 대한 결핍을 가진 주체가 자발적으로 모이거나, 모이게 만드는 것이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필요조건을 이해하고 주체를 결성하고자 한다면 지인들을 통해 한 명, 한 명 모집하기보다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모집하는 것이 좋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모집 시에는 활동의 목표에 대한 공감도를 공지하거나 신청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각기 다른 성향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호회를 꾸려 가기 위해 구성원들이 활동 내용과 참여 방식에 책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기간 내 활동 횟수가 현저히 적다거나 무단으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동호회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 동호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회원들의 무임승차도 방지하고 활동의 내용을 단단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강한 책임의식을 갖추고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무리 작은 동호회라 할지라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생기게 마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서로의 의사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을 단번에 찾기는 힘들다. 이러한 역할을 자처하며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도 그 역할을 맡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억지로 리더를 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꾸러져 가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가져가고 책임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다. 동호회 구성원들의 지지와 필요 속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외부 프로그램이다. 내부 프로그램은 주로 영화감상, 학습과 스터디, 단합활동 등이 있으며, 외부 프로그램은 영화제 및 영화상영회 개최, 온오프라인 독립잡지 제작 또는 평론 활동 등이 있다.

내부 프로그램은 회원들의 결속과 서로간의 목적의식을 함의해 가는 과정으로서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행위가 포함될 것이고, 관람한 영화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 또한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필요에 따라 영화 읽기, 비평 교육이나 리뷰 작성 등과 같이 영화 텍스트 자체에 대한 활동이나 교육도 병행될 수 있다. 이외에도 동호회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인 필요를 공유해 가는 학습과정도 필요하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어떠한 목적을 매개로 영화를 보는가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함의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준비해 가는 학습과정이 전개되어야 한다. 설정한 외부 프로그램이 영화제 개최라면 영화제에 관련한 여러 사례나 실무 프로세스를 함께 학습하거나 강사 등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외부 프로그램은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되는 기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단단한 내부 프로그램 안에서 회원들의 동기가 모

아지고 그 동기의 활동이 하나로 좁혀질 때 외부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영화제나 상영회가 되건, 또는 영화와 주체가 가진 문제의식의 담론을 형성해 가는 형태가 되건 어떤 것이든 좋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새로운 것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자발적인 형태로 이뤄지는가이다. 즉,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주체로 참여하는 회원들의 동호회에 대한 기여와 결속감이 얼마나 견인될 수 있는가가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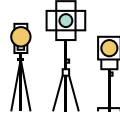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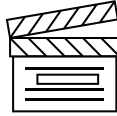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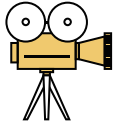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매번 만나는 데 드는 비용, 영화를 보는 비용, 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등. 연속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동호회 특성상 재정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내부 프로그램은 큰 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와 책임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외부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의 만남이 필요하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문화재단, 지자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예의 주시하고, 텀블벅, 펀딩21과 같은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거나, 여러 민간단체 등과의 연속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속에서 보다 내실 있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③ 공간(아지트)의 발굴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싶을 때, 보고 싶은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공동체 상영¹⁾ 신청을 통해 관람하건, 혹은 회원 대상으로만 DVD 감상을 하건 영화를 함께 볼 장소가 필요할 것이다.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다. 공간은 대개 극장이 아닌 공간이 될 확률이 높다. 극장 공간은 영화를 관람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자율성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동호회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이 반영되고, 기본적으로는 회원들이 교류하고 친밀도를 형성할 수 있는 아지트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공동체 상영은 영화관 또는 영화관 외 공간에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상영할 영화를 선택하지 않고 영화가 지닌 문화적이고 공공적인 가치가 주목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 상영은 영화를 통해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며 이를 통해 산업적인 형태가 아닌 문화 다양성과 같은 문화적·공공적 가치를 추구한다. 권현준, 김병수, 김소혜, 김화범, 박해미, 원승환, 이미경, 이현희, 장문정, 『우리 동네 극장 만들기 공동체 상영 가이드북』, (사)한국독립영화협회, 2009, 14~15쪽 참조.

공간 대여를 위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나 문화센터와 같은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보다 편안한 장소를 찾을 수도 있다. 고정적인 장소를 직접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최근에는 서울 마포구의 '늘씨네'라는 영화도서관 겸 영화카페나 수원 행담동의 영화매개공간 '도담 도담' 등과 같은 공동체 영화상영 및 모임을 위한 공간들도 운영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물론 대부분 대관료가 있다. 그 외에도 카페나 도서관도 좋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나 문화센터 공간, 마을회관 등 찾아보면 이용 가능한 공간은 아주 많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자!



2. 영화제 및 영화상영회 개최



1) 기획

① 상영 프로그램

영화제 또는 영화상영회를 기획할 때, 컨셉 설정은 반드시 '어떤 대상을 주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대상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영화제를 기획하며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 영화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여러 가지 이유와 관점에서 자신이 좋아했던 영화, 보고 싶은 영화의 목록을 쭉 꺼내 놓는다. 그리고 서로 가져온 영화들의 목록들을 대조하면서 결코 건널 수 없는 서로 간의 취향의 간극을 확인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생긴다.

프로그래밍을 기획하는 것은 상호 간의 학습과정과 질서를 약속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주체자의 취향을 우선 내려 놓고 상영회에 참여하는 관객들의 필요조건들을 살펴보아야 한

다. 프로그래밍이란 개인이 자기 취향이나 지식을 자랑하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닌,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화를 소개하고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적 선호와 너무 거리가 먼 기획 역시 문제가 된다. 구성원들이 참여 동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영화의문²⁾’의 사례를 들어보자. ‘영화의문’ 구성원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5세까지의 청년들이다. 이들은 ‘영화마니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영화에 대한 일정 정도의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접근 경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외부 프로그램인 영화상영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름하야 ‘팝업시네마테크’이다. 팝업스토어와 시네마테크를 합성한 명칭으로, 시네마테크는 조금 어렵고 멀티플렉스 영화는 지겨워진, 본인들과 비슷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공간에서 다발적이고 연속적으로 상영회를 개최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팝업시네마테크’의 첫 번째 기획전 제목은 ‘90년대, 비디오가게 회고전’이다.

2) ‘영화의문’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활동사례는 64페이지 참조.

기획은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적 결핍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시 보는 90년대의 영화란, 비디오라는 어린 시절의 매체를 매개로 한 영화, 영화적 다양성이 보다 확보되었던 시기의 영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획은 ‘마음대로 골라 볼 수 있었던’ 풍부한 영화 경험이 가능했던 90년대에 대한 회상이자, 지금의 관점에서 새로운 영화향유의 관점을 생각해 보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상과 주체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바탕으로 상영회의 컨셉을 설정하고 상영할 영화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영화제나 상영회를 개최할 때 관객의 수와 상관없이 주체자들의 지향이 지지 받는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은 동기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동호회의 연속적 활동 특성에 맞춰 정기상영회 또는 지속되는 영화제로 기획하는 것이 좋다. 영화제 개최를 통해 참여하는 관객들을 새로운 주체로 흡수하고 동호회를 확장해 가는 방식 역시 열려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영화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과 동호회 전체의 관점이 모두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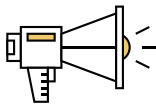
② 연계 프로그램

영화상영도 중요하지만, 영화를 마치고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 등 연계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대부분 영화관이 아닌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만큼 영화의 재미요소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객들은 굳이 극장이 아닌 곳에서 영화를 봐야 할 이유를 쉽게 찾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관객의 연령이나 상영회의 컨셉, 장소 등을 고려해 관객과의 대화나 영화 해설 프로그램, 혹은 여럿이 몸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사례로 소규모 단편영화제로 기획된 ‘랩톱영화제’는 단편영화 감독들이 자신의 영화가 담긴 노트북을 직접 들고 와 영화를 상영하면 관객들은 여러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작은 카페 공간에서 4대의 노트북으로 영화상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운드는 서로 간섭하고 화면은 너무 작아 잘 안 보이는 불편함이 있었다. 대신 동시통역기용 무선수신기를 나누어주고 각 노트북 당 할당된 채널을 선택하여 사운드를 받고, 상영 후 각각의 테이블에서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영화 관람만으로 느낄 수 없는 다른 재미의 요소를 배치하였다. 각 테이블에는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만들면서 활용했던 소품이나, 스토리보드, 시나리오와 같은 오브제를 함께 전시하여 관객과의 대화에 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어느 감독은 국수를 가져와 그 자리에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을 관객들에게 알려주기도 했고, 또 어떤 감독은 영화 속에 주인공이 치킨집 알바라는 이유로 치킨을 사가지고 와 관객과 나눠 먹기도 했다.

영화는 단순히 여가와 예술작품으로서의 향유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은 영화공동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한다.

분류	개요
체험프로그램	인상 깊은 캐릭터에게 그림편지 쓰기
	영화와 관련된 주제로 사진을 찍어 보고 스토리텔링 구성
힐링 시네마	영화 속 인물의 심리를 들여다 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알아 보고 서로 이야기해 보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영화토론	영화 속에서 가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 프로그램
영화와 문학	영화와 원작 소설을 함께 읽어 보면서 영화와 문학에서 똑같이 또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표현법과 내용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교육 프로그램
영화로 떠나는 문화여행	
영화로 본 역사	영화 속 문화, 역사, 음악, 인권 등 영화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로 관객들과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
영화 속 인권이야기	
영화해설	영화의 제작배경, 주제, 내용, 형식, 미학 등 영화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영화 읽기 프로그램
감독과의 대화	상영 영화감독이 직접 극장을 찾아 관객들과 영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GV 프로그램



2) 영화 수급과 저작권

영화제를 기획하며 초기에 발생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선정한 영화를 수급하는 일이다. 그냥 틀자니 저작권법에 저촉되고, 공동체 상영신청을 하자니,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원하는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영화를 상영할 때 상영회의 목적이 영리적이건, 비영리적이건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는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선정한 영화의 배급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이다. 배급사가 있다면 배급사와 연락하여 수급할 수 있지만, 제작사와 배급사와의 계약기한이 종료되었거나, 너무 오래되어 제작사가 없어진 경우도 있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공동체상영을 진행하는 배급사의 경우는 영화 상영료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저작권자에 따라 무료로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제부터 찬찬히 살펴보자.

① 영화저작권

저작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선정한 영화의 국내 배급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포털사이트 영화정보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통합전산망 사이트(www.kobis.or.kr)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배급사에 연락을 취해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상영료와 상영본 등에 대한 협의를 하면 해결된다. 배급사가 없거나 제작사와의 배급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을 경우, 가장 쉽게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영상자료원) 사이트(www.koreafilm.or.kr)를 이용하는 것이다. 영상자료원 DB를 검색하면 영상자료원에서 이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 상영 가능한 매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영상자료원 DB에 선정한 영화가 있다면 영상자료원을 통해 상영본을 받아 상영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영상자료원 측에서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알려준다. 대부분의 한국영화는 영상자료원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 이후는 역시 저작권자와 연락하여 직접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국내 상영에 대한 배급권 및 저작권이 전혀 없는 외국영화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 배급사와 직접 연락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에 해외배급사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동체상영을 위한 스트리밍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개 편당 5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서비스가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상영을 위해 DVD 또는 블루레이를 구입하고 상영료를 따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상영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외국영화 상영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고 난 후 문제는 번역과 자막이다. 번역 역시 직접하거나 의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번역된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하는 데에도 기술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21세기자막단'(21stcentury.co.kr)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21세기자막단은 번역과 자막을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고 번역만 수행할 경우는 '번역협동조합'(www.transcoop.net)을 이용해도 좋다. 그 외에도 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일 경우, 영화제를 통해 자막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② 공공기관과 연계한 저작권

원칙적으로 모든 영화 상영회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동의서에 저작권자의 서명을 받아야하고 공문을 주고받게 될 상황도 벌어진다. 단, 예외 조건이 있다. DVD로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영화를 DVD로 구매했을 경우, 공공단체 또는 도서관 등에서 개최하는 비영리 상영회에 한해 무료로 상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동호회에서의 상영에도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이나 도서관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나 공공기관, 도서관 등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대부분 영화상영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는 지역의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상영회를 개최하면 저작권 부분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영화상영회의 개최, 동호회의 아지트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홍보

영화상영회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홍보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디자인이나 배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화상영회를 처음 개최할 때, 상영공간을 꽉 메운 관객들을 상상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자리가 없어 서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게 해달라고 줄을 서서 아우성대는 그런 광경을 상상할 수도 있다. 현실부터 말하자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규모 영화제의 적정 관객수는 대개 회당 10명에서 많으면 50명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늘씨네’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모극장@스페이스노아’ 상영회의 경우 평균 관객은 20여 명 정도이다. 이나마도 1년 이상 쉽 없이 운영한 결과이다. 초기에는 3명, 4명이 오는 경우도 허다했다. 행사가 연속될수록 관객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 행사가 연속된다는 것은 컨셉을 지속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주요 관객층이 특정한 정보에 접근하는 주된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상영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내 집중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를 위해 고려할 요소는 우선 ‘베이스캠프’를 차리는 것이다.

베이스캠프는 홍보의 시발점이 되는 매체이다. 블로그, 홈페이지, 오프라인 포스터나 리플렛 등이 될 수 있다. 이때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우선은 전달해야 할 정보를 나열해 보고 이를 주된 대상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시각적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정보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베이스캠프에는 기본적으로 상영회의 컨셉을 전달하는 시각적 포스터 이미지, 일정 장소 등의 개요, 상영 작품과 프로그램 소개, 동호회 소개 및 참여자 소개, 마지막으로 주최 및 주관 후원 단체 명의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배포 방식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찾아 배포 리스트를 작성하고 배포 작업에 들어간다. 홍보 시기는 행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주 이상을 잡아야 한다. 배포 과정에 따라 어떤 결과가 오는지 피드백을 살펴본

다. 오프라인으로 배포했다면 배포지역을 다시금 찾아가 소모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온라인 배포는 조회수나 공감수 등을 계속 살피고 이에 따라 계속 대응해 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는 원했던 만큼의 성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객의 수는 지속되는 활동과 비례한다. 행사를 마치면 반드시 관객 설문지에 어떤 경로로 참여했는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향후 홍보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개선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4) 기술적 이슈

상영되는 공간이 극장이라면 대개 기자재를 관리하는 인력이 따로 있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술적인 부분도 직접 해결해야 한다. 영화상영을 위해 가장 고려될 기술적 이슈는 사실상 프로젝터의 밝기나 빵빵한 사운드가 아닌 (물론 이도 중요하겠지만) 상영공간이다. 영화상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의 조건은 소음 차단과 암전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는 상영 공간뿐 아니라 그 주변 공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공간은 너무 완벽한데 근방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창문을 가리지 못해 근처에 지나다니는 자동차 불빛이 계속 들어오거나 하면 관객들은 몰입에 방해를 받는다. 더불어 공간의 바닥 재질이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커피머신 등의 소음도 체크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조건이 극장처럼 완벽할 수는 없다.

공간의 조건이 확보되었다면, 이제 공간을 채울 빛과 소리를 준비해야 한다. 이 빛과 소리를 출력할 상영용 노트북이나 DVD플레이어가 필요하고, 혹은 HD나 DV와 같은 배급사에서 제공한 상영본의 경우는 각각의 상영본에 맞는 상영 장비와 사운드 장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별도의 공간에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상영매체가 DVD인 경우, DVD플레이어가 내장된 노트북을 쓰거나 별도의 DVD플레이어를 사용하면 되고, 파일일 경우는 파일의 코덱과 플레이어의 작동을 미리 시험해 보아야 한다. OS가 윈도우일 경우에는 KM플레이어를, Mac일 경우에는 VLC플레이어를 추천한다. 둘 다 다양한 코덱을 수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이며, 다른 플레이어와 충돌하지 않는 장점도 있다.

프로젝터를 선정할 때 많은 사람들은 빛의 밝기를 의미하는 Ansi를 따진다. 그러나 암전이 이뤄진 공간이라면 Ansi가 높은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명암비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Ansi가 높은 프로젝트는 대부분 명암비가 낮다. 명암비가 낮으면 블랙이 회색에 가깝고 화면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명암비가 큰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Ansi는 2000Ansi 이상이면 영화를 보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

사운드에 대해서는 5.1ch이 적합한지 2ch 스테레오가 적합한지 등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우선 5.1ch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구성되어야겠지만, 그 전에 상영될 영화가 몇 ch로 인코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영할 영화를 틀고 플레이어에 있는 콘텐츠정보를 확인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DVD 역시 대부분 케이스에 적혀 있다. 인코딩이 5.1ch이 아닌데, 굳이 5.1ch로 트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또한 컴퓨터에 달린 스피커단자(스테레오 잭)는 파일이 5.1ch로 인코딩되어 있어도 2ch 스테레오로 전송한다. 이를 5.1ch로 듣기 위해서는 컨버터가 따로 필요하다. 홈시어터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작은 믹서 하나와 2ch PA스피커를 이용해 영화를 상영해도 충분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영화감상동호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살펴 보았다. 동호회는 여럿을 포함한 하나의 몸체로서 공동의 인격을 말하며 활동 중심의 조직을 의미한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러한 활동은 두어 번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동호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장을 통해 바라보는 세계는 또 다른 것이다. 이러한 작은 상영회나 동호회 모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과 같은 큰 규모의 영화제에 참여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일상에서 동떨어진 어떤 영화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일상 속에서 하나의 탈출구와 위로를 찾고, 조금 더 능동적인 참여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방식으로 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결핍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은 아직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영화계에 많은 변화를 모색하게 하는 원심력이 될 것이다.

영화감상동호회 사례모음

사례1_ 모기동, 이야기하는 마을극장

사례2_ 책과 사람, 영화가 공존하는 곳,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사례3_ 주민이 주인공인 은평영화제

사례4_ 숨리아이쿵 작은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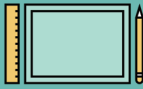
사례5_ 협동조합 '모극장'과 시민영화

사례6_ 영화는 즐거운 놀이, 영화의문

사례7_ 다큐가 좋다, 다큐멘터리 동호회 나무

사례8_ 강릉에서도 가능하다, 세손가락





모기동, 이야기하는 마을극장

활동 지역_서울 목2동

blog.naver.com/theworkplace

모기동은 행정구역상 목2동이 아닌, 감성의 거리가 가까운 이들이 모여 놀거리, 고민거리, 일거리를 나누며 살아가는 곳이다. 5층 이하의 낮은 빌라촌으로 형성된 이곳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키 작은 마을이라서 '난쟁이 마을 모기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모기동에는 카페 겸 작업실 '숙영원'이 있다. 2010년에 문을 연 이곳은 모기동 사람들이 모여 작당모의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2011년 숙영원이 있는 좁은 골목에서 시작한 작은 축제를 시작으로 강의도 듣고 영화도 같이 보기 시작하면서 오늘 소개할 '이야기하는 마을극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목2동 마을의 소통 플랫폼, 이야기하는 마을극장

모기동에서 작당모의를 하며 어울리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미디어 활동을 업으로 하는 친구가 있다.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마을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모기동에서도 가능한 미디어를 찾아보고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 즈음 미디어 활동을 하던 친구가 “동네에서 축제 때마다 하던 '빛그림 공연'으로 마을미디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어때?” 라며 옆구리를 킁킁 찌었다. 귀 얇은 순두부 멘탈을 가진 숙영원의 두 사람은 건너편 나무도예방 선생님들, 그리고 어린이책 시민연대 양천지회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마을극장을 만들게 되었다. 그 때가 2013년 가을쯤이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마을극장은 이전부터 해왔던 일들을 모아 2013년 처음으로 이름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마을극장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기능인 ‘소통’에 초점을 맞추었다. 모기동 안에서 아날로그적 소통 플랫폼을 형성하고, 사람들이 영화를 보거나 영상을 보고, 영화이야기는 물론 일상적이거나 특정한 안건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도심 속 열린 장소가 마련되길 바라며 시작됐다.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개인 안에 이미 존재한 ‘소통채널’을 통해 마을 안에서 자유롭게 접속, 전달 및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극장을 지향하며 극장은 운영되고 있다.

마을극장의 극장지기는 현재 총 4명이다. 미디어활동을 하던 친구가 옆구리를 킁킁 짚어 넘어간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의 2명과 동네에 우연히 놀러와 코가 긴 미디어-사운드 아티스트 2명이다.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는 카페 겸 작업실 숙영원을 운영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이들과 친분이 있고 재래시장에 관심이 많던 ‘프로젝트 이것저것’이라는 사운드-미디어 작가그룹이 2013년 목2동 재래시장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마을극장에서 상영회를 열게 되면서 극장에 인연을 갖게 되었고, 올해는 극장지기로 활동하게 되었다. 네 명이 함께 극장의 방향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영화를 선택하거나 장소를 물색하는 모든 일을 함께한다. 그 중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는 홍보물 디자인과 온-오프라인 홍보, 영화 섭외 및 감

독 섭외를 맡고 있고, 프로젝트 이것저것은 마을극장이 이뤄지는 모습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마을극장에서는 동네에서 만들어지는 영상들(마을축제 영상, 청소년 미디어 동호회 영상, 시장아카이브 영상 등), 어린이책 시민연대와 함께하는 빗그림 공연들, 외부에서 좋은 영화를 가지고 와서 소소하게 보는 공동체 상영 등을 진행하여 함께 보고 수다를 떠다. 공간이 협소하니 20-25명 정도가 모여 스크린에 빔 프로젝트로 영화(영상)를 본다. 동네에서 하는 극장의 가장 큰 장점은 각자 먹을 것을 가지고 와 함께 나누어 먹고, 아이들은 돛자리에 앉아 영화를 감상하고 어른들은 맥주를 한 잔씩 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에 대한, 그를 통해 생각하게 되었던 점에 대해 각자 수다스러운 대화를 나눈다. '마을'이라는 보이지 않는 테두리가 조금씩 생겨나게 하는 시간들이다. 물론 영화관보다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일방적인 시청을 넘어 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하고 수다가 가능하니 그것에 애정을 느낀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마을의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느리다. 세상의 뉴스는 참 빠른 속도로 주제가 바뀌고 사람들의 이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지만 마을은 하나의 이슈가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감히 극장을

모기들에 있는 카페, 권 직영실의 '속영양'



통한 변화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조금씩 표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새 싹들을 하나씩 나열해 본다면, 조금씩 극장이 열리는 시간을 다이어리에 체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다음에는 무슨 영화를 보자며 제안하는 주체성을 보이거나,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가 이제는 그만하라고 말리지 않으면 너무 긴 시간 이야기를 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이렇게 작게나마 개인의 변화가 보이기도 하고 동네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 나이대도 참 다양하다.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은퇴하신 어르신까지, 영화에 대해 물어보거나 포스터나 홍보물을 자세히 보거나 가지고 가는 이들이 늘어났다. 초반에 영화를 보았을 때만 해도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관심을 두지 않거나, 혹은 겉눈질로 보고 가던 모습에서 이제는 한 발 앞으로 다가온 느낌이 든다. 하지만 여전히 극장은 비주류에서도 비주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을극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소통과 대화의 부재가 만들어 낸 현대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를 통해 조금씩 해결해 나가보고자 한다. 이야기는 혼자할 수 없다. 적은 인원이라도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 되도록 그 사람들이 슬리퍼 끌고 나온 주민들이기를 희망한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생성된 이야기문화로 인해 마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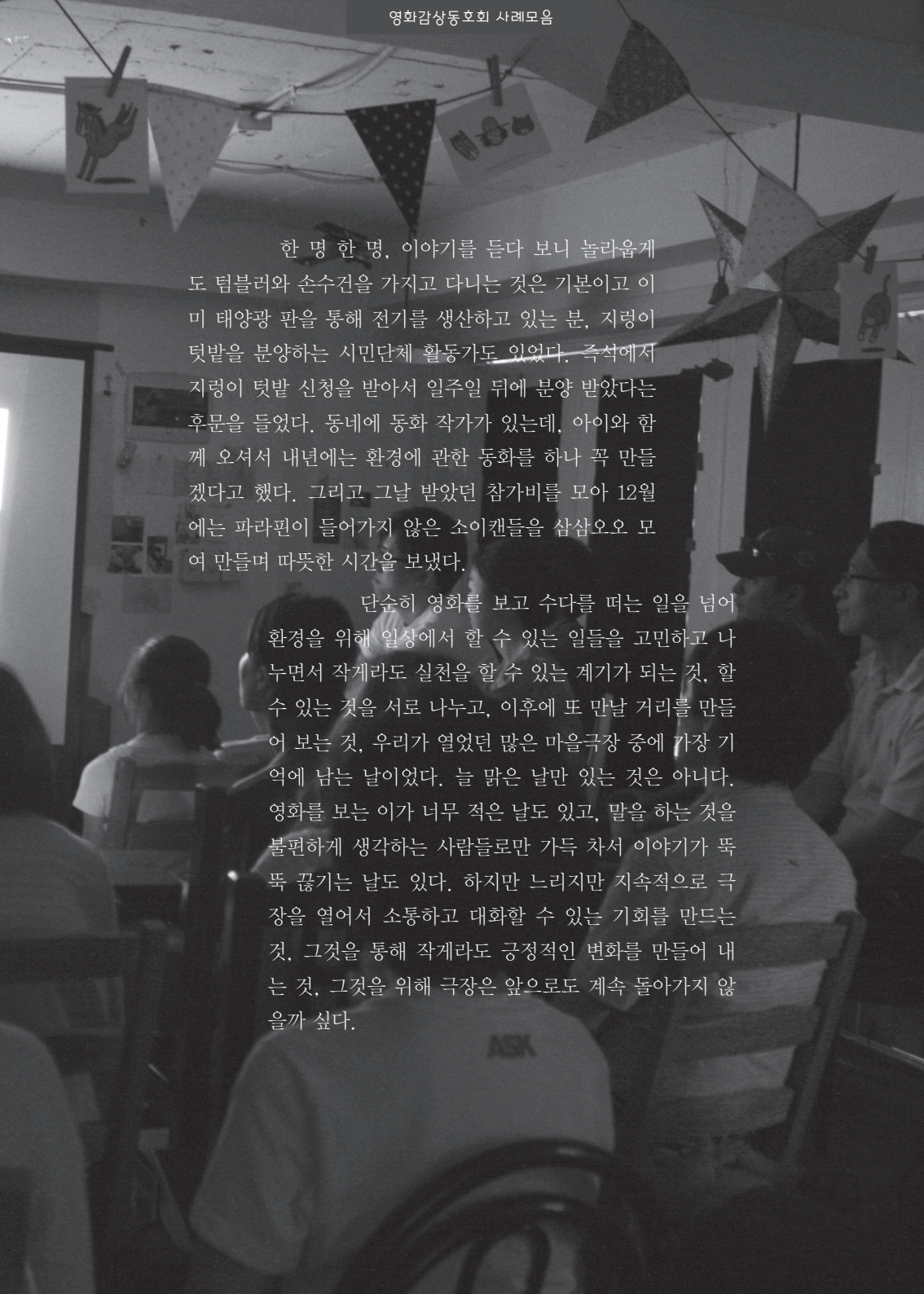
이야기하는 마을극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 영화를 함께 보는 일은 특별하게 어렵거나 품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공동체 상영비나 영상구입비가 든다.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매년 진행하는 이들의 '품'이 든다. 그리고 아직은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가 되어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문화가 되어 가는 시간을 견디는 노력, 사람의 '품'이 아마 지속 가능함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다. 이야기하는 마을극장이 마을 안에서 조금씩 이야기문화를 만들어 내고, 누군가 주도하여 영화를 보고 모이는 것을 넘어 누구나 장을 열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을의 속도처럼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화를 보고 수다를 나누는 모임을 만들어 가고 싶다.

[활동사례]

영화감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노 임팩트 맨〉 상영회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요즘, 극장지기들도 환경에 관심이 적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2014년 7월에 선택한 영화는 〈노 임팩트 맨〉이라는 영화였다.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콜린’이 1년간 뉴욕 한복판에서 가족과 함께 지구에 무해한 생활을 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영화의 소재가 ‘환경’이다 보니 환경에 관심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오길 기대했다. 이렇게 영화를 고를 때는 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소재를 가진 것을 주로 고른다. 조금 어려운 주제일 경우에는 감독님을 직접 초청해서 영화나 영화가 집중하고 있는 주제, 소재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마을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나 영상이 대부분 상업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인디영화를 배급하는 곳에 문의하면 공동체 상영이나 영화감독님 섭외가 가능하다. 물론 관람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각각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배급사와 직접 통화하는 것이 좋다.)

환경이 많은 이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다. 숙영원에 사람들이 꼭 차서 서서 보는 이들도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왔다. 씬지돈을 손에 꼭 쥐고 들어온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젊은 연인, 마음이 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이웃이 많을 것 같아 ‘모기동’에 이사 왔다는 새댁, 그리고 정년 퇴임하신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가 구분 없이 모여 맥주와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를 다 보고 돌아가면서 “올해 나는 지구를 위해 이거 하나는 실천해 보겠어!”라며 실천의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듣다 보니 놀라웁게도 텃밭리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이미 태양광 판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분, 지렁이 퇴밭을 분양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도 있었다. 즉석에서 지렁이 퇴밭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 뒤에 분양 받았다는 후문을 들었다. 동네에 동화 작가가 있는데, 아이와 함께 오셔서 내년에는 환경에 관한 동화를 하나 꼭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받았던 참가비를 모아 12월에는 파라핀이 들어가지 않은 소이캔들을 삼삼오오 모여 만들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단순히 영화를 보고 수다를 떠는 일을 넘어 환경을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나누면서 작게라도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이후에 또 만날 거리를 만들어 보는 것, 우리가 열었던 많은 마을극장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었다. 늘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를 보는 이가 너무 적은 날도 있고, 말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서 이야기가 푹 푹 끊기는 날도 있다. 하지만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극장을 열어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 작게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을 위해 극장은 앞으로도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



책과 사람, 영화가 공존하는 곳,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활동 지역_서울 응암동
www.2sangbook.com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헌책방이다.'
오래된 책, 절판되어 구하기 쉽지 않았던 책들을 찾을 수 있는 헌책방이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헌책방이 아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공연을 보고 듣고, 이야기 나누는 수상한 공간이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하 이상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소개 글 중 일부이다. 소개글처럼 이상북은 헌책방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책과 영화, 음악,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재미 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다.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이상북은 문을 연 지 8년이 됐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한 이상북 주인장은 자연스럽게 헌책방에 드나들었고,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2007년, 잘할 수 있고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응암동에서 이상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상북에서는 책과 관련한 다양한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막막한 이들을 위한 독서모임’(이하 막독)은 주인장이 만든 이상북 동지에 자연스럽게 갖는 모임으로, 동네에 살며 이상북을 자주 이용하는 단골 손님이 진행자가 되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막독은 연애, 모험, 도시, 여행 등의 주제를 다룬 책을 함께 읽고 인상 깊은 문장을 함께 모여 낭독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막독과 연계해 책에서 언급되거나 관련 있는 영화로 심야상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외에도 책과 연계할 수 있는 음악, 미술 등을 따로 묶어서 연주회, 전시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독서모임을 할 때, 책만 읽으면 처음의 흥미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책과 연계된 음악, 미술, 영화 이야기들과 함께하면서, 사람들이 흥미롭게 책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이상북은, 헌책방을 시작하고 3년 정도는 헌책방으로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신뢰를 쌓는 일에 집중하였다. 물론 무대나 프로젝트, 스크린 등은 이상북을 시작할 때부터 설치해 놓았지만 헌책방이라는 공간의 정체성,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책과 관련된 프로젝트, 모임 등을 우선 진행하였다. 천천히,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은 결과, 사람들은 이상북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신뢰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이상북에서 진행되는 '막막한 이들을 위한 독서모임'

책으로 빼곡한 책장, 책상과 의자로 둘러싸인 공간 틈에 빈 벽과 빈 공간이 있다. 평소에는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문을 여는 이상북이지만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밤에는 찻차가 다니는 시간까지 이상북의 문이 열린다. 이름하여 '심야책방.' 빈 벽과 빈 공간을 채워 고전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멋진 기타 연주와 노래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함께 야식을 먹으며 수다를 하기도 한다.

이상북 주인장은 책과 영화는 뗄 수 없는 사이이기도 하고, 영화를 함께 모여 보는 경험은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거나 TV에서 방영되는 영화를 혼자 보는 것과는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상북에서 상영회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소규모로 진행되고 심지어 아무도 안 오는 날이 있어, 그런 날에는 상영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영화를 보기도 한다.





이신부의 '시아차담' 고정영화 상영 후 열린 콘서트



[활동사례]

열 사람, 어디에 있나요! 열 사람이 함께 하는, 열 사람 상영회!

2013년 여름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고 있는 ‘열 사람 상영회’는 영화를 같이 보려는 사람이 없어 언제나 혼자 보러 가는 사람, 약간은 떠들썩한 리액션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영화를 사람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 뺄 터졌는데, 나 말고 다 조용해서 민망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등 각자의 다양한 이유로 함께 모여 영화를 보고 싶은 열 사람을 공개모집해 상영회를 진행한다.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영화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로 기획해서 이상복에 신청하면 이상복은 공간을 지원하고 홍보도 함께 한다. 상영회를 기획한 프로그래머가 상영 전 영화를 소개하고 상영 후에 영화를 보러 온 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영화와 만나고 교감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이나 자신만의 리액션 포인트를 함께 나누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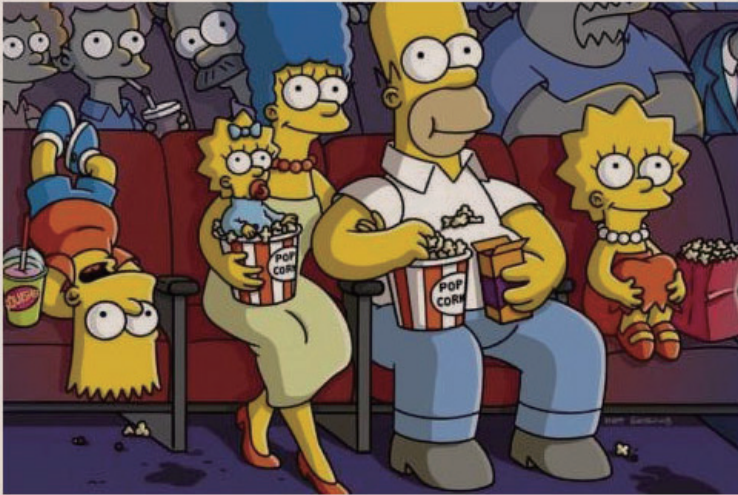
첫 번째 상영회에서는 <무숙자, My name is nobody>가 상영되었다. 유쾌한 웨스턴 영화 컨셉에 맞춰 카우보이 모자, 목이 늘어났거나 구멍 송송 난 빈티지풍 티셔츠로 드레스코드를 맞추었고 상영회 당일, 참여자들은 드레스코드에 맞는 옷을 입고 등장했다. 또한 영화 내용과 연계해 주인공인 ‘무숙자’가 술잔을 총으로 맞히는 게임을 하는 장면에서는 준비한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즐겼다.

이 영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한 이는, 이 영화에 “귀가 즐거운 서부 영화”라는 자신만의 부제를 붙이며, “이 영화를 보면 음악뿐만 아니라 음향을 통해 귀가 즐거운데, 그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이는 모이라!”고 상영작 선정의 변을 발표했다.

두 번째 상영회에서는 “걷는 속도보단 빠르고 자전거 속도보단 느린, 시속 5마일의 속도로 형에게 가는 6주간의 스트레이트한 여행”, <The Straight Story>가 상영되었다. 이 영화를 선정한 이는 “영화를 보고 ‘속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효율성과 편리

함을 이유로 계속 빨라지고 있고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 다그치고 채찍질을 해대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지치게 되는 것 같다. ‘마음은 시속 3마일의 속도로 걷는다’는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느린 속도를 우리 마음에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상영작 선정의 변을 밝혔다. 드레스코드로 경운기 패션, 그리고 상영회 올 때 시속 5마일로 천천히 걸어오기라는 재미난 컨셉도 정했다.

동네 헌책방에 열사람이 모여 영화를 보는.....



..... 열사람 상영회
 10 PEOPLE Movie Screening
 일시 : 매달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4시
 참가비 : 만 원 / 인원 : 10명

상영회 포스터

[활동사례]

우리의 속모를 찾아서, '속모의 추억'

돌이켜보면 영화를 처음 접했던 건 속모나 이모의 손을 잡고 간 영화관에서가 아니었던가요? 뭔가 말이 되는 것도 같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꾸민 속모 특집! 50-60년대 할리우드를 풍미한 대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의 〈사브리나〉,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레이스 켈리의 〈나는 결백하다〉, 〈하이 눈〉, 마릴린 먼로 〈뜨거운 것이 좋아〉, 〈7년만의 외출〉를 만나 봅니다.

우아하고 차분한 그레이스 켈리, 섹시하지만 허당에 사고몽치인 마릴린 먼로, 다소 철없지만 발랄하고 씩씩한 오드리 헵번을 각각 첫째, 둘째, 셋째 속모로 불러 봅니다.

그녀들을 속모라고 부를 때,

그녀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꽃이 될 겁니다.

무려 6개월간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었던 이 장기프로젝트는, 우리가 ‘숙모!’라고 부를 수 있는 여배우들의 영화를 함께 보고 각자가 영화에 가지는 느낌, 인상 등을 나누는 자리였다. 숙모의 추억은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이후 ‘삼촌의 추억’, ‘미소년의 추억’ 등을 기획해 보자는 참여자들의 재미 난 반응들이 있었다.

이상북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그림을 전시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현책방의 정체성을 충실히 가져가면서 책, 영화, 미술 등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상북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상북에는 주인공 이외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책 판매 이외에 주인공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렇기에 이상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는 이상북에서 여러 가지 재미 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데 빠질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북 운영시간을 오후 3시부터 11시로 하는 이유도 퇴근하고 이곳을 찾는 동네 사람들을 위함이다.

이상북에서는 단골손님들의 기획을 적극 지원하는데, ‘한 번 해 보고 재미있으면 다음에 또 하면 되고,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된다’는 생각과 가벼운 마음으로, 단골손님도 재미난 기획을 제안하고, 이상북도 그 제안을 받아 함께 즐겁게 진행하고 있다. 이상북 공간을 기반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도모해 보는 일은 이상북에겐 즐겁고도 필요한 일이다.

주인장은 이상북이 일 년 후에 오거나, 오 년 후에 와도 지금과 같은 공간이기를 바란다. 시간이 흘러 다시 왔을 때 “그때와 같네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다. 이상북은, 현책을 파는 곳으로, 그리고 함께 영화를 나누고 공연을 보고 듣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공간이었으면 한다.

이 글은 이상북 대표 윤성근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감독, 관객이 되는 주민이 주인공인 은평영화제

활동 지역_서울 은평구

www.facebook.com/nuricarnival

2014년 10월, 줄줄이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진행된 제5회 은평영화제. 은평구 '은평누리축제'의 일환으로 불광CGV에서 진행된 은평영화제는 은평구 주민이 기획하고, 은평구 주민의 작품을 상영하며, 은평구 주민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주민이 주인공인 '동네 영화제'다.

은평구 주민인 영화감독이 지인들과 함께 시작했고, 지금은 영화제 전문가 1인, 그리고 지역 영화감독들이 결합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은평영화제는 영화상영만 하던 것에서, 3회 영화제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만든 UCC 영상, 그리고 은평구에 살고 있는 영화감독의 작품을 모아 상영하는 식으로 폭을 넓혀왔다. 뿐만 아니라 전 영화의 GV(Guest Visit, 관객과의 대화)를 추구하며 가능한 한 관객들이 감독들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은평구에 사는 주민과 영화 감독들을 한 번 모아보자'는 취지로 2013년부터는 '은평구 영화인의 밤'도 진행하는 등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 영화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특정한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지는 않고 있지만 은평구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영화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활동사례]

어린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아우러지는 '동네 영화제'의 특색을 살리자!

평소 잘 볼 수 없는 독립영화를 상영하자는 의견에 따라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부터 상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은평구에는 유치원생 아이부터 20-30대 청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이다. 상영 작품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단편 모음을 상영하고 20대 청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도 상영했다. 그러자 할머니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노인 대상의 영화가 없다는 것이다. '동네영화제 못 하겠다'라고도 생각했다.



UCC 제작워크숍 관객과의 대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영화제를 하면 전 편을 다 보러 올 만큼 은평구에 독립영화 마니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만둘 수가 없었다. 오히려 은평영화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런 동네 영화제 마니아들과 함께 '동네 영화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감독들의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고, 지역민들이 감독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에 가능한 전 영화의 GV를 현실화하고자 했다. 지역에 사는 감독이 모데레이터로 활동하고 또 지역 '꼬맹이'들이 사회를 보기도 했다.

상영작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이 작품이 이 지역에 어울리는가'이다. 2011년 약 350여 명이 참석했던 <소중한 날의 꿈> 상영회에서 안재훈 감독은 영화를 보러 온 아이들에게 무려 2시간에 걸쳐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열의를 보였는데, 이러한 상영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하나의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들게 되고, 또한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은평영화제의 또 다른 주요 상영작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 만든 UCC영상이다. UCC영상 공모를 통해 선발된 영상들을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한다. 상영회 때는 영상을 만든 감독뿐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까지 모두 손을 잡고 상영관을 찾는다. 고무적인 것은 은평구의 지원으로 현재는 영상을 공모하기 전에 구에서 UCC제작 워크숍을 열어 교육-제작-상영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작품의 질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를 거듭하면서 영화제가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 영화제 기간이나 상영 작품을 늘리고, 또 관객과의 대화 외에 지역과 관련한 워크숍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시도들이 절실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은평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영화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영화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힘들다. 고맙게도 영화제 검토나 안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채워 주지만,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게 항상 아쉽다. 은평구 외에 영화제를 지원해 주는 다양한 통로를 찾고 있지만, 상영 편수를 포함한 영화제 규모 등 지원 조건들이 까다로우며 동네 영화제를 위한 지원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하지만 이런 한계 속에서도, 지금은 지역의 감독들과 주민들이 모여 부족함을 채워 가며 하나의 축제처럼 영화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함께하는 은평구 주민관객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은평영화제는 여전히 다양한 시도들을 구상 중이다. 지금까지는 은평구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상영하거나 서울의 다른 지역의 작품들을 상영했다면, 앞으로는 서울 이외 지역과의 교류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영화제가 1년 중 며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의 여러 동네에서 순회상영 방식으로 연중 진행되도록 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 영화제에 참여한 관객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의 동사무소에서 작품을 상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는데, 이런 수요가 있는 만큼 지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상영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확대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글은 은평영화제 운영단 박정숙 감독님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익산 솜리아이쿱(iCOOP)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새로운 작당모의,
솜리아이쿱 작은영화제

활동 지역_전라북도 익산

11. 5(수) 19시 : 샤말아저씨, 가로등을 끄다

11.12(수) 19시 : GMO OMG

11.19(수) 19시 : 워커즈

11.26(수) 19시 : 토헤즈

* 유아놀이방 운영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이하 익산센터)에서는 매년 ‘익산여성영화제’가 열린다. 2014년에 5회째를 맞은 익산여성영화제는 ‘여성’을 키워드로 한 다큐멘터리, 극영화와 지역에서 제작된 여성 감독들의 작품 등 약 2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그 외에도 관객과의 대화나 기타 부대행사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지역 영화제다.

익산여성영화제가 지역 영화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익산센터를 장소 기반으로 하여 익산의 ‘농촌이민여성센터’, ‘숨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익산여성의 전화’, ‘전북여성장애언어올림센터’ 등 지역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영화제를 기획·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민들이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영화제를 개최하고 이를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활동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반갑게도 2014년에는 익산에 또 하나의 작은영화제가 생겨났다. 익산여성영화제 개최의 노하우와 경험을 일부 살려 숨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숨리아이쿱 작은영화제’를 개최한 것.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안전한 식품, 공정 무역을 이용하는 소비,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소비, 나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이른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 가는 협동조합 형태의 단체로, 익산 역시 지역에서 생협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모임은 생협 조합원 간 소통을 위한 중요한 창구이자 통로이다. 동이나 아파트 단위로 7~8개 정도의 모임이나 동호회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잘 되는 곳도, 잘 안 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윤리적 소비’를 위한 다양한 정보나 물품 등에 대한 소통을 위해 이러한 마을모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30~40개 정도의 모임이 있는 부산 같은 지역에 비하면 아직 열악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활동들을 통해 여러 가지 만남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활동사례]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생협스러운' 영화제

숨리아이쿱 작은영화제도 소통을 위한 활동 중 하나로 기획되었다. 생협 조합원들 중 주부로서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고, 직장인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보니 낮에 모임을 갖는 것이 어려웠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장인 모임을 하지만 일을 마치고 저녁에 모인다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이러한 '직장인들을 한 번 모아 보자'는 취지로 직장인 대상의 영화제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익산센터에서 총 4번의 상영회를 가졌다. 작품은 생협과 익산센터가 논의를 통해 결정했고 상영료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지원에 받았다. 에너지 절약에 관한 인도영화 <샤말 아저씨, 가로등을 끄다>,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해 새롭게 눈을 뜨게 해 주는 <GMO OMG>, 일본의 협동조합 '위커즈 코프'의 사람 냄새 나는 활동들을 담아낸 <위커즈>, 육아와 개인적 열망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 여성의 모습을 담아낸 <토헤즈>까지, 정말이지 이번 영화제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다채롭고 '생협스러운' 작품들이다.

회당 20여 명 안팎의 인원이 상영회에 참여했다. 영화제 관객수 치고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관객수와 별개로 상영회 현장은 풍성하고 흥미진진했다. 매번 영화가 끝나면 이 행사를 기획한 생협 조합원 중 한 명이 진행을 맡아 무대에 선다. 관객은 영화를 본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 등을 종이에 적어 비행기로 접고 무대로 날린다(사실 비행기가 잘 안 날아가서 2주차부터 그냥 상자에 넣었다). 진행자는 관객의 소감을 소개하면서 관객들과 대화를 이끌어 가고, 생협에서 준비한 선물도 증정한다. 우리밀 과자, 사과즙 같은 '생협스러운' 탐나는 아이템들이다.

기존 모임을 통한 구성원들 간 유대, 동호회 간 연계의 중요성

영화제가 풍성할 수 있고 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된 데에는 뭐니뭐니 해도 생협을 중심으로 기존에 마을모임을 통해 만나왔던 사람들의 유대관계가 팀워크로 이어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익산여성영화제 기획이나 모더레이터 경험이 있는 ‘베테랑’의 참여와 관심 분야의 영화를 맡아 책도 찾아보며 준비한 진행자의 노력 등이 모여 작지만 의미 있는 영화제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첫 회인만큼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도 많았다. 먼저 직장인들 대상의 영화제라 저녁에 상영회를 했지만 관객수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방학 때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환경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하게 되었다. 장소 역시 꼭 미디어센터 상영관이 아니더라도 지역 복지관 등에서 문화 나눔 형태로 상영회를 기획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제의 확대,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모임의 확산과 이러한 모임들 간의 네트워크이다. 책과 영화 상영을 연계한 ‘영화로 책 먹다’라는 익산의 마을모임이나 영화 제작 동호회 등 영화를 매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호회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이러한 모임들 간의 네트워크는 부재한 상태이다. 제1회에 이어 제2회 슝리아이쿱 작은영화제와 이후 영화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기 위해 이러한 모임들 간의 연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전에 이런 만남과 연계가 전제되어야만 주체들의 뜨거운 관심과 의지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물론 작품 지원도 꼭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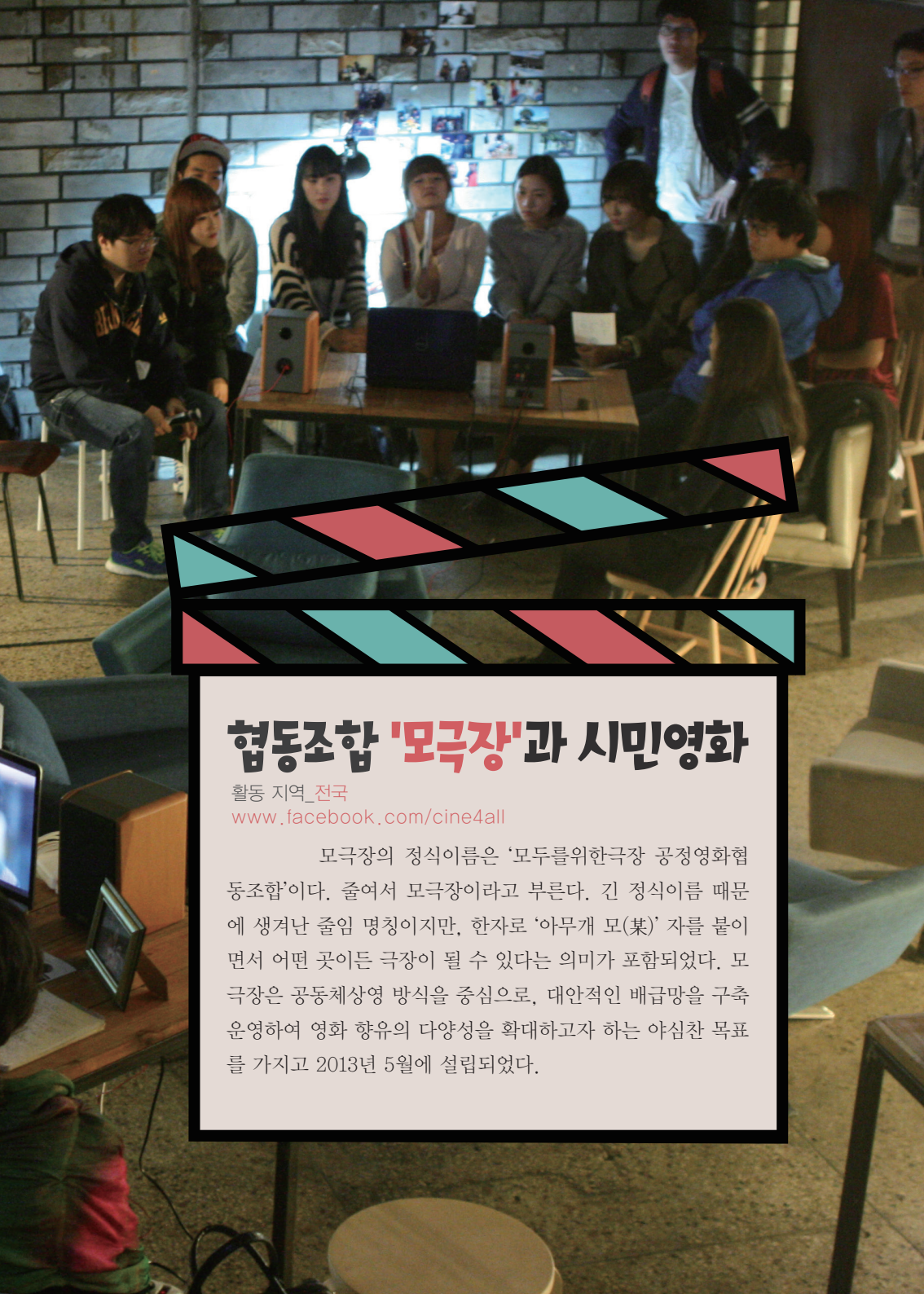
이 글은 슝리아이쿱 운영단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ilm Festival)

정년정년인 동등정년 동등정년
모두를 위한 극장

정류하는 극장이다





협동조합 '모극장'과 시민영화

활동 지역_전국

www.facebook.com/cine4all

모극장의 정식이름은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이다. 줄여서 모극장이라고 부른다. 긴 정식이름 때문에 생겨난 줄임 명칭이지만, 한자로 '아무개 모(某) 자를 붙이면서 어떤 곳이든 극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 모극장은 공동체상영 방식을 중심으로, 대안적인 배급망을 구축 운영하여 영화 향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2013년 5월에 설립되었다.

모극장이 설립을 준비한 시기는 2010년 겨울부터였다. 이 당시부터 협동조합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스태프 등 영화인 처우와 복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형태의 영화사를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몇몇이 뭉쳐 느슨한 상태의 준비모임 겸 스터디를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느슨한 형태의 만남은 술자리를 위한 구실이 되기 딱 좋았고 별다른 아이디어를 생산하지 못한 채, 이러한 모임이 있었는지도 차츰 잊혀져 갔다. 그러다 2011년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중 몇몇은 그를 잘 알고 있었고 얼마 동안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이 사건이 우리를 움직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색하던 고민에 책임감을 던져 주었다. 막연한 창업놀이였던 모임은 보다 진지해져 갔다. 영화인들의 자활적 복지를 통한 공제조합을 고려해 보면서 협동조합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영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7개의 개별법이 존재했는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이 유일했다. 생협은 설립 시에 2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며 (소비자)조합원 외에 조합의 이용이 금지되는 조건이 있어, 영화산업의 특수성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던 중,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기본법의 골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모극장은 2013년 3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 승인, 법인 등기와 사업자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3년 5월 1일 노동절에 설립되었다. 조합원 모집은 2012년 여름, 설립을 준비하는 기획단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20여 명, 가을에 또 다시 모집하였을 때 20여 명이 참여 신청을 하였다. 매주 1회씩 모여,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검토하고 협동조합 관련한 스터디와 설립 이전에 사업 타당성을 위해 진행할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석률이 낮거나 참여도가 적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퇴출되었다.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사람만이 기획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약속을 잡고 지켜 나갔다. 최종적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출자한 사람은 총 13명이었다.

설립 이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공동체 상영 수요층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관련한 영화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고 이 영화들의 공동체상영 배급을 진행하였다. 노트북으로 단편영화를 상영하고, 데스크GV도 진행하는 ‘랩톱영화제’도 진행하였다. ‘사회혁신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경제, 노동, 인권, 여성, 국제사회 등의 주제를 다룬 영화를 중심으로 정기상영회도 시작하였다.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경의선 폐선부지 위에 ‘늘씨네’라는 소규모 영화도서관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술영화 DVD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모극장은 이러한 대안배급의 가능성이 자발적인 시민조직과의 연계로부터 시작된다는 부분을 인식하여 시민영화공동체의 육성과 시민영화프로그램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원 영상미디어센터와의 협력으로 수원시민프로그램 발굴과정 워크숍을 통해 선발된 시민프로그램들과 2014년 12월 19일, 20일 양일간 ‘수원 사람들 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시민프로그램 육성과 영화관람공동체 지원사업은 2015년도 모극장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사업 영역을 생협과 지역미디어활동과 결합하여 확장하고 스스로 영화 향유에 대한 거대 조건을 단순화하여 대안적인 영화배급망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극장은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스타트업 협동조합으로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시도와 시험을 이어 왔다. 모극장의 최종적인 목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국 단위의 대안영화배급망을 구축하는 일이고, 이를 통해 영화산업에서 유의미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발전이란, 작은 기여들이 모아지고 이 기여들의 연합으로서 협동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 그 전망을 가늠할 수 있다. 영화산업의 성장 안에서 발생된 불균형은 이제 정부의 힘으로만 또는 시장 주체의 자유의지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렵다. 다양성과 향유권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인 의지와 정부와 산업 사이의 견제와 협력, 유의미한 거버넌스의 생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조직과 시민영화공동체에 대한 관계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활동사례]

‘스페이스 노아 상영회’ 그리고 ‘늘씨네와 벗들’

모극장은 특정 공간과 그 공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에 맞춰서 상영회를 기획하고 있다. 시청 앞 ‘스페이스 노아’라는 공간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한 이들의 코워킹 스페이스다. 이곳은 원래 룸살롱 골목이었는데 룸살롱을 개조해 지역 내에서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모극장은 스페이스 노아와 함께 매월 ‘스페이스 노아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 상영회에서는 사회혁신 콘텐츠, 노동, 인권, 사회적 경제, 환경, 여성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작품들을 기획·상영하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게스트를 초청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작년 12월에는 켄 로치 감독의 <지미스 홀>을 함께 보고 시청역 일터에서 동네 잡지를 만들며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시청역의 점심시간’이라는 게스트와 함께 이웃과 지역의 문화적 공동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문화·사회 전반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추천하는 ‘인생의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인 금요 토크시네마 ‘늘씨네와 벗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평론가, 영화감독, 뮤지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만의 영화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늘씨네와 벗들’ 상영회는 모극장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화도서관 ‘늘씨네’에서 진행된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 폐선부지를 시민의 장으로 재탄생시킨 늘씨네는 몽골식 게르 형태에 비닐외장으로 제작되어 있다.

늘씨네에서 <말하는 건축 : 시티홀>을 상영하며 연출자인 정재은 감독이 직접 찾아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 적이 있다. 그때 정재은 감독은 “살다 살다 포장마차에서 영화를 틀기는 처음”이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서울아트시네마의 김성욱 프로그래머가 게스트로 참여하여 장 르누와르의 <강>을 상영하던 날 영화 중간에 갑



간영 | 네비클

자기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우두두둑 천정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함께 즐고 있던 관객 모두가 벌떡 일어났다. 관객들은 혹시나 천정이 뚫어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했다. 영화관이 아닌 공간에서 상영회를 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재미난 에피소드들이다.

어디든 극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모(某극)장이라는 이름처럼, 모극장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면 어디든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작은 단위의 사람들과 만나 영화를 매개로 깊게 만나는 재미난 기획들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영화는 즐거운 놀이, 영화의문

활동 지역 전국
www.cinedq.com

‘영화의문’은 ‘모두를위한극장’의 청년조합원들이 만들었다. 모두를위한극장은 공정영화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이다. 공정영화란 영화의 상영, 배급, 제작의 과정에서 공정한 배분과 윤리적 원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모두를위한극장은 공정영화의 가치를 협동조합적인 연대의 방식을 통해 실현하고 건강한 영화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영화의문의 구성원들은 모두를위한극장의 청년기획단 시절부터 조합원 시기까지, 그러한 공정영화의 가치를 공유하며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왔다.

그 문제의식은 기존의 시네필 커뮤니티의 외연을 확장하여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영화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관람 공동체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극소수의 상업영화만이 살아남는 영화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화들을 감상하고 이야기하는 관객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당위적인 목적 이외에도 공동체적으로 영화를 감상하고 이야기하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인 재미있는 놀이이기도 했다. 그 와중에 사회적 경제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2013년 하반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Moim’ 지원사업 선발을 계기로 영화의문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모임프로젝트를 통해서 영화의문은 영화를 매개로 한 취향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나갔다. 특히 멀티플렉스 극장에 편중된 관람 활동을 지양하고 대안문화공간에서의 비극장 상영과 다양성 영화관을 활용하여, 시네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홍대 인근의 ‘영화다방 와’에서 원승환 전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응답하라 씨네필’이라는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4년 상반기에는 모두를위한극장의 청년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영화의문을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그 고민의 연장선에서 영화의문은 2014년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에 지원하게 되었고 최종 선발되었다. 팀원들은 영화를 창작하는 청년영화인부터 시네마테크 운영에 관심을 가진 청년까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업은 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그 본질로 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시장’이라고 구획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는 조직이다. 경제적인 지속가능성 역시 중요한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어떤 조직을 근본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가 아닐 것이다.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되지 않는 연대와 신뢰의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영화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 우연적 만남이 필연적으로 공고화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

영화평론가 앙드레 바쟁의 말대로 영화는 “세상을 비추는 창”이기에 영화를 매개로 한 공동체는 단순한 취향 커뮤니티를 넘어설 것이다. 영화가 담고 있는 세계의 풍경들은 어떤 사회와 공동체, 개인의 문제를 경유하여 결국 나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렇기에 영화를 공동체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즐거운 놀이이기도 하면서 실존적인 소외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가능성이란 더 이상 경제적인 가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한경쟁의 구조에서 사람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찾고자 한다. 공동체적이고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내재적인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시민프로그래머 양성’ 프로젝트였다. 프로그래머는 영화관 혹은 영화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상영할 영화들을 선별하고 각종 기획전과 프로그램들을 기획한다.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래머가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활동이 줄 수 없는 충분한 재미와 의미를 가져다 준다. 일본 미야코 영화생협의 ‘시네마린’이나 캐나다의 ‘아카디아 극장’ 등의 마을극장은 시민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된다. 시민들이 극장의 조합원으로서 극장의 운영과 프로그래밍에 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향후 협동조합형 극장이 설립되거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영화관’ 같은 지역 영화관이 확대된다면 시민프로그래머의 실무적 역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극장을 만들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영화 기획전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매주 공덕역 인근 작은 영화도서관 ‘늘씨네’에서 무료로 시민프로그래머 상영회를 운영했다. 우선 영화의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았다. 자신이 상영하고 싶은 영화와 그 이유, 간략한 자기소개, 영화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간략한 양식으로 작성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한 달간 영화를 상영할 4명의 시민프로그래머와 상영할 영화의 수급이 확정되면 포스터를 만들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했다. 초기에는 분업화가 명확하지 않아 구성원들이 기획과 홍보, 행사 실무를 두루 병행하였지만 점차 각자의 영역을 찾게 되었다.

관객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시민프로그래머 활동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스스로 프로그래머가 되어 행사를 진행해 본 시민들은 큰 만족감을 피력하였다. 혼자서는 쉽사리 감상할 엄두가 나지 않는 구로사와 아키라 등의 일본 고전영화부터 찰리 채플린, 구스 반 산트, 기타노 다케시 등 다양한 장르와 사조의 작품들이 상영되었다. 영화감상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 시간과 뒤풀이를 통해 풍성한 영화담론들이

우리들이 선정한 수급한 영화상영회

보여주고 싶은 영화,
풀어주고 싶은 이야기





시민 프로그래머 양성 워크숍 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회가 거듭될수록 영화를 좋아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영화를 창작하는 청년영화인,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청년들, 한때의 시네필이었던 중장년층의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소소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게르식 극장인 늘씨네의 아늑함과 영화의 힘에 마음을 무장해제당한 사람들은 서로의 일상적 고민들을 털어 놓으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질적인 취향의 부딪침과 부조화는 영화를 함께 본다는 것의 모호함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적은 관객수와 기대보다 부진한 시민프로그래머 신청인원 역시 큰 고민이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8주간의 ‘시민프로그래머 양성 워크숍’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가 직접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프로그래머를 양성하고 워크숍을 수료한 시민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람공동체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워크숍 커리큘럼을 확정하고 문래동의 ‘정다방’이라는 갤러리 공간을 대관하여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그렇게 탄생한 ‘작은 영화제 기획 워크숍’은 시민프로그래머의 의미 발견, 영화 수급, 저작권, 상영 실무, 홍보 등 영화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 전반을 학습하고 실제로 영화제를 운영해 보는 과정으로 꾸며졌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커다란 호응이 이어졌다. 직장인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프로그래머가 되어 영화제를 직접 만들어 본다는 내용에 큰 흥미를 나타냈다. 8주간의 워크숍 과정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특히 워크숍 3주차에는 영화잡지 Anno, 서울아트시

누구나 모여서 무엇이든 상상하는 작은 영화제

그들 각자의 영화제

2014.9.12-14

〈그들 각자의 영화제〉는 〈영화의문〉의 프로젝트
‘작은 영화제 기획워크숍’을 이수한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나가는 시민들의 영화 축제입니다.



마지막 휴게소

9.12.금

19시부터 All Night
V맨션(상수동 262-2번지)

네 멋대로 해방

9.13.토

22시부터 All Night
싱크투두 옥상(문래동3가 54-32)

못.다.한 영화제

9.14.일

14시 - 20시
당랑회관(성북구 길음2동 21-71)

주최 및 주관

영화의문

영화의문은 2014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함께일하는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마 관객운동팀, 영화 팟캐스트 ‘오나전타쿠부’ 등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는 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4주차에는 셀러드영화제, 영덕대계촌, SF도서관, 키노빈스 등 다양한 비극장 상영회 운영 경험을 가진 팀들을 초대하여 상영회 기획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간담회는 시민들에게나 우리에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펼칠 수 있는 상상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간담회에 참여했던 많은 팀들을 통해 시민들은 영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활력소인지, 영화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위크숍의 후반기에는 영화제 섹션별로 팀을 나누어 ‘그들 각자의 영화제’라는 이름하에 무료로 치러지는 영화제를 기획했다. 7주차에는 다양성 영화관 중 가장 모범적인 운영 사례의 하나로 꼽히는 영화공간 주안의 김정욱 관장을 초청하여 팀별 기획을 최종점검받기도 했다. 그렇게 열성을 다한 준비 끝에, 영화의문의 시민프로그램머들이 기획한 ‘그들 각자의 영화제’가 3일 동안 서로 다른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영화제 이후에도 영화의문은 관람공동체 활성화와 상영과 창작을 아우르는 시민기획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활동사례]

시민프로그램머가 만드는 ‘그들 각자의 영화제’

영화의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은 워크숍을 수료한 시민프로그램머들과 함께했던 ‘그들 각자의 영화제’였다. 3일 동안 세 개의 섹션으로 치러지는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20명에 가까운 시민들과 영화의문 운영진들은 한 달 반에 걸쳐 많은 준비에 준비를 거듭했다. 우선 특색 있고 차별화된 영화제를 만들기 위한 기획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야외에서 만드는 가족영화제, 보편적인 진선미를 일깨워 주는 영화제, 타르코프스키, 고다르 등 작가주의 영화들을 위주로 한 영화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표됐다. 우선 각자가 만들고 싶은 영화제의 테마에 따라 세 개의 팀이 구성됐다. 이어서 각자의 기획에 맞는 최적의 공간을 섭외하고 영화를 수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무료로 치러지는 행사이긴 했지만 시민프로그램머의 실무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영화 수급은 배급사에 공동체 상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첫 번째 팀은 ‘휴가’를 테마로 하였다. 미처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치 자연 속 휴양지에 와 있는 듯 편안한 분위기의 영화제를 만들고자 했다. 그런 취지에 맞게 상수역 인근의 게스트하우스를 대관하여 실내와 야외 동시상영을 기획했다. 실제로 게스트하우스의 그림 같은 야외 풍경과 고요한 분위기는 영화제 테마에 안성맞춤인 환경이었다. 프로그래밍 역시 <쥬스>, <기쿠지로의 여름>, <문라이즈 킹덤>,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등 휴가지 콘셉트에 맞는 공포, 여행, 모험물 위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팀은 ‘해방’을 테마로 했다. 영화제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 억압들에서 해방되는 순간을 만끽해 보자는 취지였다. 그런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많은 토의가 거듭되었다. 자유로운 해방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문래동 철공소 거리의 건물 옥

상에서 영화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트라우마, 편견, 금기 등 갖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억압에 관한 영화들을 프로그래밍하였다.

처음에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폐허와 같이 황량한 옥상을 마주하고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레드카펫 느낌의 천으로 바닥을 꾸미고 커다란 스크린 천을 벽면에 설치한 뒤 조명장치를 곁들이니, 사방이 탁 트인 옥상의 운치가 더해져 어느 극장 못지않은 옥상영화관이 탄생하였다. 옥상이라는 환경과 밤샘 상영의 일정상 추위와 배고픔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따뜻한 무릎담요와 소세지 바베큐, 밥버거 등을 준비했다. 특히 옥상에서 치러지는 영화제이기에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기도 했다.

그들 각자의 영화제 | 게스트하우스 실내와 야외 동시상영 중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관객들이 옥상에 찾아와 영화제를 즐겼다. 심지어 밤의 한기에 몸을 움츠리면서도 무릎담요에 의지한 채 아침 해가 밝아 올 때까지 남아 있는 관객들도 상당수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와 옥상에서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 우리는 거창한 영화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공간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작은 영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날에는 성북구의 당랑회관이라는 대안문화공간에서 ‘못 다한 영화제’라는 테마로 마지막 날의 행사가 치러졌다. ‘못 다한 영화제’는 못 봐서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영화들을 감상한다는 의미였다. 단 시간 내에 흥행성적을 보이지 못하면 빠른 주기로 영화가 교체되는 대형 극장의 특성상 작품성을 지녔으면서도 많은 상영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작품들이 많다. ‘못 다한 영화제’는 그러한 영화들을 선별하여 관객들과 재밌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되었다. <만신>, <577프로젝트>, <환상 속의 그대> 등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상영 후에는 재밌는 영화 퀴즈 이벤트와 영양만점 샌드위치 간식이 곁들여진 소소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렇게 3일간의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좌) (가운데) (우) 영화제 준비 중인 모습

연일 밤을 새야 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불평 한 마디 없이 서로의 행사를 묵묵히 도와주는 시민 프로그래머들과 팀원들을 보면서 작은 감동을 느꼈다.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그들 각자의 영화제’와 ‘영화의문’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홍보 포스터, 리플렛, 엑스배너 등 각종 부대 물품들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 또한 소소한 재미의 하나였다. 특히 영화제 트레일러를 제작했던 일이 기억에 남아 있다. 트레일러 제작은 일정상 내리 밤을 새가며 기획, 배우 섭외, 촬영장소 선정, 촬영, 편집을 3일

만에 해내야 하는 강행군이었다. 하지만 서로의 열정에 감화되어 누구 하나 힘든 줄 모르고 너무나 유쾌하게 작업을 마쳤던,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각인되어 있다.

프랑스의 영화비평가 '카이에 뒤 시네마'의 편집장이었던 세르주 다네는 “진정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것은 사라진 영상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제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영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은 영화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쌓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영화제에서 느낀 환희의 순간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무력감과 무미건조함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사라진 영상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았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느끼며 우리에게 속해 있는 공통적인 그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것. 우리가 이 세계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음을 다시금 상기하는 경험. 혼자가 아니라는, 알 수 없는 위안과 안도감. ‘그들 각자의 영화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꼭 우리가 했던 축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저마다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영화들이 꾸준히 상영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다큐가 좋다, 한 달에 한번 착해지는 다큐보기

활동 지역_강원도 원주
cafe.naver.com/wjnamu.cafe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나면 눈물도 나고, 너무 자신만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첫 마음을 더욱 다지게 됩니다. 또한 뉴스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큐상영회를 계속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원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좋은 다큐를 보여 주자는 것과 다큐 상영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미디어로 많은 것을 배우는 청소년들에게 다큐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지혜를 심어 주고, 메이저급 상업영화만이 영화관을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작지만 꾸준한 상영회가 갈 곳 없는 독립영화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동호회 나무 온라인 카페 글 중

‘다큐멘터리 동호회 나무’(이하 다큐 나무)는 원주에서 한 달에 한 번 다큐멘터리,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독립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모임이다. 출발은 다큐멘터리를 찍은 김성환 감독(닉네임 ‘나무꾼’)을 중심으로 하나둘 모인, 각종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만 상영하여 지방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한국독립다큐멘터리를 ‘원주’에서 보고 싶어 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2004년 5월에 ‘다큐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착해진다’는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첫 작품으로 김동원 감독의 <송환>을 상영하며 시작했다.

상영회는 상영작 선정에 대해 상영회 한 달 전쯤 다큐 보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거나 온라인 카페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시작된다. 자발적으로 다큐 나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직접 작품을 선정하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람을 권하며 상영회를 진행한다. 회원들의 회비와 관람료만으로 감독 초청료나 작품 상영료 같은 상영회 진행 경비를 충당하다 보니 늘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큐 나무 상영회에 작품을 보여주는 감독들의 깨어 있는 의식과 열정이 없었다면 ‘나무’는 이만큼까지 성장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큐 나무가 시작된 지 십 년이 지난 지금, 상영회를 진행하는 회원은 몇 번씩이나 다양한 사람으로 바뀌어 왔다. 물론 여전히 뿌리 깊은 나무처럼 늘 상영회를 지키는 사람도 있다. 바로 다큐 나무의 운영진들이다. 운영진은 정회원으로서 한 달에 한 번 관람료를 일반회원보다 조금 더 많이(정회원은 2006년부터 만 원 이었다! 일반 관객은 3000원으로 시작해 요즘은 5000원이고, 청소년은 언제나 무료이다) 내고, 그 외에도 가끔 비정기적인 후원금을 낸다. 이들의 열정으로 이곳을 지탱해 올 수 있었다.

상영회 진행 경비 문제나 몇몇 무례한 관객으로 인해 지칠 때도 있었고 상영회를 계속해야하나 고민도 많았지만, 다큐 나무 상영회는 아직 ‘원주’에 존재한다. 그 십 년의 시간 동안 다큐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을 생각해 보면, 지역시민단체와의 연대, 그리고 원주라는 지역이 지닌 역사성 덕분이 아닐까 싶다.

한국독립다큐멘터리는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와는 다르다. ‘기록한다’는 것은 영화의 본질이며 시작이며 기원이지만, 정작 기록에 충실한 다큐멘터리를 지역의 극장가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불과 몇 년 전이 되어서야 <송환>과 <우리학교>가 일반 극장

에서 겨우 개봉되기 시작은 했으나, 여전히 한국독립다큐멘터리의 배급과 상영권 확보는 열악한 게 현실이다. 다큐 나무 상영회 또한 상영권 확보에 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처음엔 원주문화원에서 상영을 했고, 이후에는 카톨릭 센터, 봉산동 녹색연합 그리고 원주청소년문화의집, 판부 문화의 집을 전전하며 상영회를 진행했다(2011년 원주시민영상협의회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수탁하면서 이전보다 안정적인 상영관을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역시 다큐전용관이라는 꿈의 실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다큐 나무 상영회의 초창기 상영 장소가 카톨릭 센터와 녹색연합 사무실이었던 데에서 원주의 민주화, 생명사랑운동의 역사성이 드러난다. 원주의 정신적 지주인 무위당 장일순은 1970년대부터 지학순 주교와 민주화 운동 및 생명사랑의 운동을 전개했다. 지학순 주교는 평생을 지역사회 문화활동, 노동자 교육, 반독재 및 부정부패 척결운동, 양심수 석방 및 민주화운동, 인권보호운동 등에 힘썼다. 이 과정에서 원주 중심가에 카톨릭 센터를 건립하였고 이를 통해 그야말로 황량했던 원주에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자리 잡은 것이다. 이처럼 원주가 걸어온 민주화와 생활협동조합 진화의 여정은 상영회가 뿌리를 내리는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다큐 나무는 단지 상영회만 하는 모임은 아니다. 처음에 다큐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원주를 ‘다큐문화의 꽃’을 피우는 문화도시로 일구는 꿈을 꾸었듯이 상영회가 자리 잡으면서 그 지평을 다큐 제작을 위한 영상교육과 시민이 직접 찍는 다큐 제작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카메라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교육을 시작하여 꾸준히 이루어졌다. 시민단체 민우회의 ‘여성 카메라로 세상을 만나다’라는 기획을 통해 황성에 사는 이주여성들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일상과 이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 영상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작품을 상영하면서 원주 지역의 다큐를 향한 청소년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터전을 다큐 나무가 만들었다. 이러한 토대는 2011년 원주다큐페스티벌을 시작하는 동인이 되었다.

[활동사례]

원주다큐페스티벌로 꽃 피우다 2011년 첫 번째 원주다큐페스티벌, 마침내 첫 발을 내딛다!

원주다큐페스티벌은 보고 싶은 다큐멘터리를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보는 다큐멘터리 영화제입니다. 원주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각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청소년들이 보고 싶은 다큐멘터리를 선정해서 함께 보는 스스로 만든 영화제입니다. 원주다큐페스티벌은 소도시 원주를 다큐 보는 도시, 다큐를 좋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원주다큐페스티벌은 이 땅에서 다큐 제작 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갈망합니다. 감독 초청을 원칙으로 하며 초청료와 더불어 해당 영화 관객 수입을 감독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큐의 특성상 단순한 감독과의 대화를 지양하고 작품의 배경과 소재 그리고 주제 등을 보다 진지하고 깊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다큐 나무 온라인 카페 글 중



2004년에 원주를 다큐의 중심으로 일구어 내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으로 심어진 다큐 나무는 지난 십 년 동안 비바람을 자양분 삼아 가치를 뽐고 든든한 뿌리를 내려 원주다큐페스티벌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2011년 제1회 원주다큐페스티벌 개최로 그동안 다큐 나무가 지향해 온 지역의 시민단체와의 연대, 공동체 상영을 실천한 것이다. 민주노총 원주지부, 원주녹색연합, 원주민우회, 원주민예총, 원주시민연대, YMCA, 원주청년회, 한살림 등 지역시민단체와 공동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는 그야말로 다큐축제의 큰 씨앗이었다.

원주다큐페스티벌은 그동안 다큐 나무가 걸어온 발걸음의 의미와 가치를 고스란히 녹여 낸 결정체다. '다큐가 좋다'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다큐멘터리로 구성했고, 다큐 꿈나무 기르기 실천의 일환으로 '교실로 찾아가는 다큐'를 진행하거나 직접 찾아가기 어려울 경우 복합상영관으로 초대하여 무료로 다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꿈꾸는 다큐'라는 주제로 시민이 직접 찍은 작품을 상영하여 단순한 상영만을 위한 영화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고, 자원봉사자와 관객으로 시민심사단을 구성해 우수 작품을 선정하였다. 원주다큐페스티벌의 지향이 '스스로 만드는 다큐문화'이기 때문이다.

2014년 네 번째를 맞이한 원주다큐페스티벌은 수능을 본 고3 학생을 배려하여 오전시간에 원주 시내 복합상영관을 대관하여 '극장으로 학교가자'라는 주제로 4일 동안 8편의 다큐를 무료 상영하였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다. 청년의 정신이 건강해야 우리들의 미래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터이다. 다큐 나무가 다큐 꿈나무 기르기를 소중히 여기는 실천으로, 청소년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까닭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다큐 보는 사람을 늘리기 위한 홍보방안 수립과 다큐 나무 상영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회원 모집이다. 이미 다큐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다큐 지킴이 회원 모집'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앞으로도 가끔 지칠 때도 있고 열정이 식을 때도 있겠으나 언제나 '나무' 뿌리에 새겨진 신조는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이다. 십년이라는

시간의 힘이 '나무'를 든든히 뿌리 내렸다면 또 다시 2004년 처음 <송환>을 상영했던 그 마음으로 한 달, 한 달 상영회의 뿌리를 내리리라.





강릉에서도 가능하다, 세손가락 프로젝트

활동 지역 강원도 강릉

www.facebook.com/3songarak



4년 전,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가 생기고 센터에 자주 오가는 고등학생 몇 명이 주축이 되어 정동진독립영화제 기록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년간 영화제 기록팀 활동을 함께 하고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러나 스무 살이 되자 몇몇 친구들이 강릉을 떠나야 했다. 강릉에 남게 된 친구들은 함께 작업을 할 동료가 없어졌으니, 새로운 멤버들을 구하기로 했다. 그렇게 ‘겨울협의회’가 만들어졌다. 겨울협의회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마다 새로 멤버들을 모으고 영상을 제작했다.

몇 번의 작업을 하면서 ‘왜 영상작업만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연극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음악을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겨울협의회 세손가락’이라는 이름을 새로 짓고, 각자의 재능을 살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함께할 친구들이 많아지면 좀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싶어 중학생들도 멤버로 합류시켰다. 이렇게 모인 멤버들이 2013 ‘세손가락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강릉 지역의 청년, 청소년들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이후 우리는 겨울협의회와 세손가락이 합쳐진 ‘세손가락’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 세손가락의 구성원은 2014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5명의 작가들과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1명의 친구까지 총 6명이다. 따로 역할 분담을 하지는 않고, 자신이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직접 팀 구성을 하고 꾸려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세 명의 기획자들이 모여 각자 특기를 살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라디오로 담고 있는 ‘네모네모씨의 대학’, 강릉 지역 뮤지션들이 모여 버스킹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세손가락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감자동마이크’,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독립출판 프로젝트인 ‘방구석 내원고’ 등 면면도 다양하다.

세손가락과 ‘강릉’

세손가락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면 아무래도 대학이나 진로 얘기를 묻게 되는데 가끔 몇몇 친구들에게 “서울로 대학 가려고요”라는 대답을 들곤 한다. 그럴 때면 같이 만날 친구가 사라지는 것 같은 쓸쓸한 마음이

들곤 한다. 슬픈 사실은 사실 나 역시 고등학교 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었다는 것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꿈이 없든 있든, 강릉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서울은 청년들이 살아갈 길이 ‘많고’, 강릉은 청년들이 살아갈 길이 ‘적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꼈다고 생각한다.

강릉에서 청소년으로, 또 청년으로 살면서 느끼는 강릉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란 방법 외에는 꿈을 이어 나갈 길이 없고, 또 이걸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꿈을 가지든 공부야 먼저인 교육환경 때문에 우리의 꿈은 특별활동과 학원을 가는 시간 내에서만 허락된다. 물론 그마저도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 밀려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다. 강릉의 청소년, 청년들은 그것에 순응되어 자신의 목표대로 삶을 꾸려 나가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뜻을 접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알 기회조차 없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친구들도 많다.

실제 세손가락 활동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강릉에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다. 연기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어쉴 프케나마 연극을 해 본 친구,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친구,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처음 만드는 친구… 분명 강릉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엔 그것들을 접할 기회는 너무나도 적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든지, 그게 아니라면 꿈이 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는 것이다.

세손가락은 여전히 작다. 강릉을 떠나 서울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에게 “함께 하자”며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강릉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강릉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곳인 건 맞는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의 한계가 사람들의 삶을 정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이 아닌, 이곳에서도 할 수 있다.’ 세손가락은 강릉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곳이 되길 바란다.

세손가락은 계속해서 강릉의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무대 만들기 활동과 상영토크, 소셜파티 등의 문화 프로그램, 강릉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나 행사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활동사례]

우리들만의 모임을 만들다

서로를 알아 가는 시간, 영화 보기 모임

영화 보기 모임은 2012년, 영화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 두 분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이 흥미롭게 본 영화를 가지고 재미있게 본 부분, 카메라 구도, 영화의 배경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었다. 자신에게 인상 깊었던 영화로 이야기를 하니 서로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고, 친구들의 새로운 시각에 자극을 받기도 했다. 가끔은 평소 즐겨 보던 형식의 영화가 아니어서 보기 힘들어 하거나 발표에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보고 느낀 감정을 그대로 공유하고 감독의 의도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현재도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선정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볼지를 미리 공유한다. 예를 들어 어린 배우들의 연기, 카메라의 구도가 영화에 끼치는 영향, 핸드헬드로 촬영한 이유, 영화의 색채와 전반적인 분위기 등이다. 영화를 고른 사람은 미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영화를 봤는지, 왜 이렇게 만든 것 같은지, 이 영화는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등을 발표한다. 발표가 끝나면 다른 멤버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눈에 띈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거나, 다른 영화들과 비교를 하기도 하며, 소소한 감상까지도 자유롭게 토론을 한다.

각자가 고른 영화를 함께 보기 때문에 장르도 다양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분야도 다르다. 그렇기에 매주 자유롭게 새로웠지만, 전체적으로 합의된 진행 방향이 필요하기도 했다. 모임을 진행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한다. 모임에는 재미를 위해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

향과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진행할지를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서로의 참여 목적이 다른 만큼 모임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태도도 달라지고, 전체적인 진행방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화제

우리는 청소년이 만든 단편 영화들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여러 관객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열심히 만든 영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고, 편하게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고 2013년 제1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화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네 명의 친구들이 기획한 것으로, 공모를 통해 영화를 선정하고,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 등과 같은 부대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무대를 만드는 것까지 영화제의 모든 과정을 손수 진행했다. 트레일러도 직접 제작해서 상영했는데, 생고기를 맛보는 장면이나 끊임없이 웃는 장면으로 영화제를 소개한 것은 인상 깊었다. 관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부분은 아쉬웠다.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관객을 모으는 데에도 힘쓸 것이다.

영화를 매개로 이야기 나누려는 소박한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영화제라는 틀 때문에 새롭게 고민할 점들이 생겼다. 다양한 관객들이 즐겁게 보고 이야기 나눌 영화를 골라야 한다는 것은 막연하고 어려웠지만, 그만큼 영화를 대하는 다른 시각을 얻었다. 청소년의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잘 전해지고, 관객들과 우리에게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그런 영화들, 그렇지만 그들만의 재치와 순수함이 묻어나는 영화들을 고르려고 애썼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프로그램과 홍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한 점, 영화제가 끝난 후 감독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점이다. 그래도 관객들의 질문과 감상들이 오고 갈 때 참 행복했고, 그들이 만

든 영화를 함께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정말 뿌듯함을 느꼈다. 앞으로는 좀 더 탄탄한 준비를 통해서 더 다양한 영화를 준비하고, 청소년 감독들이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도 한 번 더 만들고 싶다.



세종특별자치시립도서관에서 열린 '손가락집' 상영토크

상영토크 '너도 열아홉이고 싶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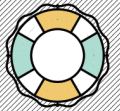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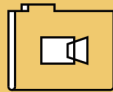
상영토크 '너도 열아홉이고 싶니?'는 수능을 본 친구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겨울협의회로 활동하던 시절, 대학, 진로, 꿈에 대해 고민했던 이야기를 그린 <나는 열아홉이고 싶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이후 이 다큐멘터리를 타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게 되었는데, 주변 친구들이 의미 있었다고 했다는 감상을 전해 주었다.

'그렇다면 수능을 본 친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고 꿈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추운 겨울, '손가락집'에서 상영토크 '너도 열아홉이고 싶니?'를 진행했다. 함께 <나는 열아홉이고 싶다>

를 보았고, 꿈과 진로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억에 남는 건 열아홉살 친구들의,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였다. 꿈을 인정해 주지 않는 부모님과과의 충돌,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고민, 친구들보다 뒤쳐질까 두려운 마음, 어느 하나 쉽게 풀릴 리 없는 상황과 고민들이 강릉, 그리고 한국의 청소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영화는 일상의 여러 단면 중 하나에 집중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모든 걸 담을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영화는 그 불안전함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에서 꺼내기 어려운 것들을 꺼내어 달래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일상과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들을 꺼내어 이야기해 볼 수 있었던 이 상영회를 통해 그런 영화의 장점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다.

세손가락 활동을 통해 강릉의 청소년,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우리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강릉 지역의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이 모이고 재미난 일들을 작당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록



전국미디어센터

지역	미디어센터명(37개소)	홈페이지	전화
서울(6)	서울영상미디어센터	media-center.or.kr	02-2265-2204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gsmedia.gangseo.seoul.kr	02-2600-7715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ssro.net	02-795-8000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cine.arirang.go.kr	02-3291-5540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mediact.org	02-3141-6300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ohzemidong.co.kr	02-777-0421
인천/경기(6)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blog.naver.com/incheoncomc	032-722-7900
	주안영상미디어센터	juancamf.or.kr	032-872-262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gymc.or.kr	031-960-9752
	부천시민미디어센터	bcmc.or.kr	032-329-8150
	성남미디어센터	snmedia.or.kr	031-724-8370
	수원영상미디어센터	swmedia.or.kr	031-218-0390
강원(5)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gnmedia.or.kr	033-640-4961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blog.naver.com/gangwoncomc	033-240-2345
	원주영상미디어센터	wonjumc.kr	033-733-8020
	춘천MBC시청자미디어센터	chmbc.co.kr/media	033-259-1200
	화천생태영상센터	화천생태영상센터.kr	033-441-2050
대전/충청(5)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blog.naver.com/medianuri	042-865-3700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ocmc.oc.go.kr	043-730-3604
	제천영상미디어센터	jcbom.com	043-645-4995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cameia.or.kr	041-415-0099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	041-956-7936
대구/울산/경북(4)	대구영상미디어센터	dgmedia.or.kr	053-655-0099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	053-740-9909
	울산MBC시청자미디어센터	umbcmedia.com	052-290-1126
	안동영상미디어센터	-	054-840-6977

지역	미디어센터명(37개소)	홈페이지	전화
부산/경남(4)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comc.or.kr/comc	051-749-9500
	김해영상미디어센터	okcom.in	055-320-1271
	진주시민미디어센터	jjmedia.or.kr	055-748-7306
	MBC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	055-251-3650
전북(3)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ismedia.or.kr	070-8282-8070
	전주시민미디어센터	0simi.org	063-282-7942
	전주MBC시청자미디어센터	cafe.daum.net/ppoo00	063-220-8000
광주/전남(3)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comc-gj.or.kr/comc/	062-650-0300
	목포MBC시청자미디어센터	mokpombc.co.kr/sub_media/ sub_media	061-270-9290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scmedia.or.kr	061-811-0220
제주(1)	제주영상미디어센터	jejumedial.com	064-727-7800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미디어센터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참여적 미디어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범하였으며, 현재 전국 29개 미디어센터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070-4352-6394 / 서울 중구 퇴계로36길 본관 4층)

작은영화관

지역	작은영화관명(10개소)	홈페이지	전화
전북	고창 동리시네마	gochang.go.kr 생활정보>문화체육>동리시네마	063-564-1340
	김제 지평선시네마	cinema.gimje.go.kr	063-547-1501
	무주 산골영화관	movie.muju.go.kr/index_9is	063-322-7053
	부안 마실영화관	buanmasilcinema.co.kr	063-582-1228
	완주 휴시네마	wanjumovie.kr	063-263-9012
	임실한마당 작은별영화관	imsil.ccine.co.kr	063-644-7050
	장수 한누리시네마	hannuri.ccine.co.kr	063-352-7050
강원	홍천시네마	hongcheon.ccine.co.kr	033-433-7053
	화천 산천어시네마	sancheoneocinema.co.kr	033-441-7053
인천	강화 작은영화관	ganghwacinema.co.kr	032-934-7053

영화관련 기관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전화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044-203-2000
	영상물등급위원회	kmrb.or.kr	051-990-7200
	영화진흥위원회	kofic.or.kr	051-720-47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re.kr	02-2669-98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arte.or.kr	02-6209-59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or.kr	061-900-2100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or.kr	1566-1114
	한국영상자료원	koreafilm.or.kr	02-3153-2001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1800-5455
영상위원회	경기영상위원회	ggfc.or.kr	032-623-8039
	경남영상위원회	gnfc.co.kr	055-296-0303
	광주영상위원회	gjfc.or.kr	062-674-4008
	대전영상위원회	djfc.co.kr	042-479-4114
	부산영상위원회	bfc.or.kr	051-7200-301
	서울영상위원회	seoulfc.or.kr	02-777-7092
	아시아영상위원회네트워크	afcnet.org	051-7200-301
	인천영상위원회	ifc.or.kr	032-435-7172
	전남영상위원회	jnfc.or.kr	061-744-2271
	전주영상위원회	jjfc.or.kr	063-286-0421
	제주영상위원회	jejufc.or.kr	064-727-7800
	청풍영상위원회	cpfc.or.kr	043-645-4995

독립예술영화배급사

배급사명	홈페이지	전화
CGV 아트하우스	cgv.co.kr/arthouse	1544-1122
KT&G 상상마당 영화사업팀 (주)이투엑스포	sangsangmadang.com	02-330-6200
(주)그린나래 미디어	facebook.com/greennarae.movie	02-577-5011
(주)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facebook.com/9ers.ent	070-4490-4072
(주)레인보우팩토리	cinerainbow.blog.me	02-4225-8796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barrierfreefilms.or.kr	02-6238-3200
시네마달	cinemadal.com	02-337-2135
어뮤즈	amusefilm.com	02-747-9128
(주)옛나인필름	cafe.naver.com/cinusat9	070-7017-3311
(주)연필로 명상하기	studio-mwp.com	02-318-4564
(주)영화사 백두대간	cinart.co.kr	02-747-7782
영화사 진진	facebook.com/jinjinpictures	02-3672-0181
영화사 오드(AUD)	facebook.com/audcine	02-790-7543
(주)인디스토리	indiestory.com	02-722-6051
인디플러그	indieplug.co.kr	02-702-0370
찬란	challan.co.kr	02-545-6023
(주)키노아이DMC	timestorygroup.com	02-324-0469
(주)티캐스트콘텐츠초허브	·	070-8145-3100
판씨네마(주)	facebook.com/pancinema.movie	02-359-0710
(주)프레인글로벌	prain.com	02-722-2693
필라멘트 픽처스	·	02-371-6114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kiafa.org	02-313-1030
한국영화아카데미 배급팀	kafa.ac	02-320-3513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배급팀	knu.ac.kr	02-746-9547

영화제+영상제

구분	영상제명	홈페이지	전화	시기
시민영화/ 영상제	부천시민영상축제	on.fb.me/hxHIYQ	032-329-8150	11월중
	전주시민영상제	0simi.org	063-282-7942	11월중
	익산다큐영화제	cafe.naver.com/wonjudocufestival	070-8282-8070	12월중
	익산장애인영화제	ismedia.or.kr	070-8282-8070	9월중
	익산여성영화제	ismedia.or.kr	070-8282-8070	4월중
	원주다큐페스티벌	facebook.com/wonjudocumentary	033-733-8020	9월중
	원주여성영화제	facebook.com/wonjuwomenfilm	033-733-8020	7월중
	천안여성영화제	cameia.or.kr	041-415-0099	11월중
	고양여성영화제	gymc.or.kr	031-960-9752	7월 중
다큐멘터리 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dmzdocs.com	1899-8318	9월 중
	EBS국제다큐영화제	eidf.org/kr	02-526-2158	8월 중
	인디다큐페스티벌	sidof.org	02-362-3163	3월 중
음악 영화제	KT&G상상마당 음악영화제	sangsangmadang.com	02-330-6200	6월 중
	제천국제음악영화제	jimff.org	02-925-2242	8월 중
인권 영화제	강릉인권영화제	film4n.com	033-645-7415	11월중
	광주인권영화제	gjhrff.com	070-4153-7526	11월중
	서울인권영화제	hrffseoul.org	02-313-2407	5월중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420sddf.com	02-739-1420	4월중
	인천인권영화제	inhuriff.org	032-529-0415	11월중
	장애인영화제	pdf.or.kr	02-461-2684	9월중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dhff.or.kr	064-757-9887	10월중
여성 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wffis.or.kr	02-583-3598	5월 중
	광주여성영화제	cafe.daum.net/wffig	062-515-6560	11월중
	여성인권영화제 피움(fiwom)	fiwom.org	02-3156-5414	9월중
	인천여성영화제	wffii.kr	070-7579-3080	7월중
	제주여성영화제	jejuwomen.tistory.com	064-756-7261	9월중

구분	영상제명	홈페이지	전화	시기
단편 영화제	대구단편영화제	diff.kr	053-629-4424	9월중
	대단한단편영화제	sangsangmadang.com	02-330-6200	9월중
	미장센단편영화제	msff.or.kr	02-927-5696	6월중
	부산국제단편영화제	bisff.org	051-742-9600	4월중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aisff.org	02-783-6518	11월중
독립 영화제	대전독립영화제	difv.co.kr	042-864-1895	11월중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	ifmib.org	070-8888-9106	11월중
	서울독립영화제	siff.or.kr	02-362-9513	11월중
	인디포럼	indieforum.org	02-720-6056	5월중
	전북독립영화제	jifa.or.kr	063-282-3176	11월중
	정동진독립영화제	jiff.kr	033-645-7415	8월중
애니메이션 영화제	부천국제 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pisaf.or.kr	032-325-2061	10월중
	서울국제 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sicaf.org	02-3455-8435	7월중
	인디애니페스트	ianifest.org	02-313-1030	9월중
환경 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	gffis.org	02-2011-4300	5월중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anfifis.org	02-514-1588	8월중

서울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미디어센터 인프라 및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상창작 및 상영 지원을 통해 방방곡곡 국민 모두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공공 영상미디어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여 체계적인 지원 및 교류방안을 모색합니다.

수도권 시민의 영상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영상미디어 교육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문화공동체 활동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